



ISBN 979-11-978276-6-2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memory in Anseong project

안성에서 살아왔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억으로 기록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memory in Anseong project

# 안성, 다시 아로새기다

안 성 1 동 이 야 기



안성, 다시 아로새기다

안성1동 이야기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memory in Anseong project

# 안성, 다시 아로새기다

안 성 1 동 이 야 기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memory in Anseong project



안성3동

안성2동



안성동

안성미디어센터

## 목차

### 프롤로그 8

#### 1. 안성을 기록합니다. 10

#### 2. 여기는 안성1동입니다. 16

안성1동 지명 유래 알기

옛날에 부르던 동네 이름

안성1동 지명

안성에서 유래된 말

#### 3. 안성1동 사람들 32

안성에서 최초, 제일예식장 \_이재용 님

안성 도보 성지순례길 추진단장 \_유승덕 님

안성1호 문구점 재건문구사 \_홍원홍 님

행복을 전달하는 라온제나봉사단 \_연기일 님

한일광고, 안성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_구본경 님

3대째 운영 심준식방앗간 \_이영균 님

지금은 사라진 명신빵공장 \_심윤석 님

1972년부터 이어온 도림목재 \_이인숙 님

#### 4. 안성1동에서 만난 장소 94

안성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인 안성초등학교  
일출과 일몰 명소로 알려진 비봉산  
경기도 문화재자료 안성향교  
근대유산 안성1동 주민센터  
경기도 기념물 안성성당과 앙투안 공베르 신부  
50년 된 문구점이 재건사커피로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안일옥  
변함없는 추억의 맛을 자랑하는 중앙스넥  
장애청년 바리스타와 함께 가는 디딤카페

#### 5. 길 따라 걷다 보면 124

허생전의 배경인 안성장 따라 도보 여행 코스  
마을의 옛 기억을 살린 벽화거리  
마을 주민의 오래된 쉼터 낙원역사공원  
역사와 문화의 공존을 꿈꾸는 낙원역사공원 문화축제  
바우덕이축제 길놀이퍼레이드  
안성객사와 일본신사터  
흔적만 남은 중앙정미소

#### 에필로그 164

## 안성, 다시 아로새기다

작은 마당이 있는 낡은 집에 살았습니다. 작은 몸집의 어린 나만큼이나 작은 강아지, 따가운 가시를 숨기고 있던 장미꽃, 마당 한쪽에 심겨있는 켈비어의 단맛은 혀끝에 아른거리는 미각의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작은 마당은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며 대문을 넘어 동네 전체가 되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던 낡은 구멍가게와 하얗게 눈이 내린 겨울날 하얀 김을 올리던 호빵 기계, 공터에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관리되지 않던 우물 등 생각나는 추억이 많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으면 사라져 없어진 많은 흔적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정미소가 있던 자리, 예식장이 변한 상가, 어린 아버지가 주전자를 들고 막걸리를 받아왔던 술도가와, 집에 가며 먹으라고 꼬막손에 얹어 주신 술지킴이에 취해 쓰러졌던 이야기 등 신기하고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익숙했던 많은 것들은 낡은 흔적이 됩니다. 개천은 덮이고 오래된 집들은 철거되거나 바뀌어 새것처럼 변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의 도시는 옛 흔적을 찾아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다시 복원하고 싶어 하지만 새로 만든 추억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성1동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도시 속 작은 공간입니다. 푸르른 나무 그늘에 묻어나는 고요한 햇살, 그리고 오랜 세월 흘러간 시간을 아로새긴 동네의 흔적들, 과거의 소리와 현재의 숨결이 어우러진 이곳은, 오랜 세월 변해가면서도 여전히 특유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성1동의 이제는 사라져 없어진 가게, 변해버린 길거리와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진 기억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 안성, 다시 아로새기다》는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담아내어,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이들에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동네 안성1동에 대한 사랑과 이야기를 담아, 시간을 초월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기를 희망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이 즐거운 동네의 추억 일부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걷는 동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성미디어센터장 김우희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memory in Anseong project



# 1

안성을  
기록합니다.

## 안성을 기록합니다.

안성시는 12개의 읍면 행정구역(고삼면, 공도읍, 금광면, 대덕면, 미양면, 보계면, 삼죽면, 서운면, 양성면, 원곡면, 일죽면, 죽산면)과 동 행정구역(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으로 나뉜다.

그 중 안성1동은 안성시 문화생활권의 중심에 있다. 안성1동의 법정동은 15개로 가사동, 가현동, 구포동, 낙원동, 동본동, 발화동, 명륜동, 봉남동, 봉산동, 성남동, 송인동, 영동, 옥천동, 창전동, 현수동이 있다.

안성1동의 중앙에 안성시청이 있고, 안성천이 가로질러 있다. 이전부터 흐르던 안성천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그러나 안성을 시가지 평면도에서 보이는 물줄기는 현재 흔적을 찾기 어렵다.

안성천 옆 추억의 6070거리는 조선시대 3대 장터 중 하나인 안성장이 열렸던 곳이다. 옛 사진 속에서 본 안성장은 과연 조선시대 전국 3대장답게 북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안성장과 지금 안성시장의 위치는 다르다. 현재 안성시장은 1960년 대 말에서 1970년 대 초 안성2동(서인동)으로 이전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옛날에는 안성1동에 걸쳐 안성장이 크게 열렸다. 도기동(안성2동)이 안성장입구였는데 이곳에는 갯수선집, 나무전, 숙박시설 등이 있었다. 사람들은 쇠전다리(안성교)를 건너 성남동에서 소를 거래했다. 우시장은 1960년 대에 도기 1통 구우전 마을로 옮겨갔다. 성남동을 지나 창천동에서 싸전거리가 이어졌고, 낙원동(안성1동)쪽으로 나무전, 야채전,



《안성기락》화보



구안성의 석정동 농산물 검사소 근처 누에공동수매광경(1920년대). 사진출처 : 《안성시지8》

어물전거리가 있었다. 봉남동은 장터라는 의미로 ‘장기’라고 불렸다. 안성장에는 유기전, 포목전, 잡화전, 도자기전, 식료품전, 금은전, 해산물전, 미곡전 등 많은 종류의 가게가 즐비했다.

현재에 서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안성1동이 얼마나 변화한 곳이었는지를 볼 수 있다.

안성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조각조각 흩어진 기억이 한데 모일 것이다. 작은 조각이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안성, 다시 아로새기다》속에서 한데 모여 안성시민들에게 유의미한 기록물로 남기를 바란다.

## 진행 일정

2023년 6월~8월	《2023 메모리 인 안성프로젝트 : 안성, 다시 아로새기다》 프로젝트 장소 선정
2023년 8월 9일	[안성1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들과 마을 아카이브 회의 진행
2023년 8월 18일	[안성맞춤박물관 방문] 흥원의 학예사 인터뷰, 안성1동 주민 인터뷰
2023년 9월	현장 답사 및 사진 촬영
2023년 9월 14일	이재용 님, 유승덕 님 인터뷰
2023년 9월 27일	조재엽 님, 흥원흥 님 인터뷰
2023년 11월 14일	이인숙 님 인터뷰
2023년 11월 15일	구본경 님, 임남희 님, 심윤석 님, 이영균 님, 연기일 님 인터뷰
2023년 11월 30일	원고 마감
2023년 12월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 안성, 다시 아로새기다》 제작 및 인쇄



1872년 안성지도 사진출처 : 《안성시지2》



안성시가지평면도 사진출처 : 《안성시지2》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memory in Anseong project



# 2

여기는  
안성1동입니다.

## 안성1동 지명 유래 알기



## 구 안성읍(現 안성1, 2, 3동) 연혁

- 1413년(태종 13년) 안성읍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속  
갑오개혁 때 충청도로 소속
- 1896년 경기도에 편입
- 1914년 3월 1일 북리면, 서리면, 동리면 ⇨ 읍내면으로 통합
- 1931년 4월 1일 읍내면 ⇨ 안성면으로 개칭
- 1937년 4월 1일 안성면 ⇨ 안성읍으로 승격
- 1943년 동리를 갈라서 정으로 사용
- 1947년 일본식 동명 변경으로 정 ⇨ 동
- 1988년 8월 1일 동리명 변경으로 동 ⇨ 리
-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 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으로 개편

옛날에 부르던 동네 이름



**동리면(東里面) → 現 안성1동**

동리(東里), 교동(校洞), 장기(場基)

안성읍내의 동쪽에 있어 동리라 불렀다. 1914년에 교동을 합쳐서 읍내면에 편입했다. 1943년에 명륜정, 동본정 1정목, 봉산정, 송인정, 봉남정으로 불렀다. 1947년 일본식 동명 변경으로 정에서 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명륜정→명륜동, 동본정 1정목→동본동, 송인정→송인동, 봉남정→봉남동으로 바뀌었다.

**서리면(西里面) → 現 안성2동**

서리(西里), 수용(水春), 석정(石井), 옥산(玉山), 도기(道基), 계촌(桂村)

안성군청 서쪽에 있어 서리라 불렀다. 1914년에 수용촌, 웅기전거리를 병합하여 읍내면(안성읍)에 편입되었다. 1943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본정 1정목, 2정목, 소화정 2정목이라 불렀다. 1947년에 일본식 동명 변경으로 서본정 1정목→서인동, 서본정 2정목→대천동, 소화정 2정목→인지동으로 바뀌었다.

**북리면(北里面) → 現 안성3동**

당산(堂山), 실왕(實旺), 금석(金石), 북리(北里), 사곡(沙谷)

안성읍내 북쪽에 있어 북리라 불렀다. 1914년 북리면 5개리와 동리면 3개 동리, 서리면 6개 동리를 병합하여 읍내면으로 변경됐다.

## 안성1동. 현재



## 안성동 지명

### ① 가사동(加土洞)

본래 안성군 가사면 지역

비봉산 아래 들가에 있는 마을이라 ‘갯터’, ‘산밑가터’, ‘가사’라 불렸다.

1914년에 보개면 가사리로 편입되었다가 1998년 4월 1일에 안성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안성1동으로 편입되어 가사동이 되었다.

1) 가사 1동 - ‘원가터(元加터)’로 가사동의 원 마을이라는 뜻이다.

2) 가사 2동 - 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산밑가태’라고 불렸다. 약 1900년에 기계유씨(杞溪兪氏)가 개척한 마을으로 갯, 채, 담뱃대와 같은 전통공예가 발달했다. 마을 한 가운데 큰 웅덩이가 있어서 ‘베루모통이’라고 불렀다가 장호원선과 서삼선이 생기면서 삼거리라고 불렀다. 네집매는 가사이구, 가사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② 가현동(加峴洞)

본래 안성군 가사면 지역

갯터(가사리) 앞 벌판이라 ‘벌갯터’, ‘가현’이라 불렸다.

1914년 보개면 가현리로 편입되었다가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안성1동으로 편입되어 가현동이 되었다.

1) 가현 1동 - 벌갯터

1520년경 정삼품(正三品)벼슬을 한 김응소가 의성김씨(義城金氏)와 함께 정착한 마을. 이후 강씨(姜氏), 남씨(南氏)가 이주해 살았다. 마을이 벌판 가장자리에 있어서 ‘벌갯터’라 부른다.

## 2) 가현 2통 - 물레방앗말, 수용촌(水春村)

옛날에 물레방아가 있어서 물로 절구질하는 마을이라 ‘수용촌’이라 불렀다. 발음이 어려워 ‘우영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 ③ 구포동(九苞洞)

비봉산 아래 안성향교를 짓고 그 밑에 동원과 객사를 지었다. 그래서 마을을 ‘객사 앞’이라고 불렀다.

1943년에 계촌리 일부를 갈라서 동본정 2정목이라고 하다가 1947년 일본식 동명 변경으로 구포동으로 바뀌었다.

### ④ 낙원동(樂園洞)

공원거리. 1943년에 장기리 일부를 갈라 ‘대화정’이라 부르다가 1947년 낙원동으로 바뀌었다.

### ⑤ 동본동(東本洞)

영동(榮洞)의 동쪽에 닿아있는 곳으로 동네 중앙을 통하는 작은 골목이 있었다 해서 ‘안골목’으로 불렀다.

1943년에 동본정 1정목이라 하다가 1947년에 동본동이 되었다.

### ⑥ 명륜동(明倫洞)

생거골, 향교골, 향교말, 향교촌, 교동

1532년(조선 중종27)에 건립된 안성향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본래 안성군 동리면 지역

1914년에 동리에 편입되었다가 1943년에 교동을 갈라서 ‘명륜정’이라고 불렀다.

1947년에 동명 변경에 따라 정이 동으로 바뀌었다.

## ⑦ 발화동(發花洞)

비정이뜰, 발화대, 바르대, 농촌리  
본래 안성군 가동(가지곡)면 지역

약 200여년 전쯤 금녕김씨(金寧金氏)가 마을에 정착해서 살았다. 풍년이 든 적 없어 ‘비정이뜰’로 불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이 개화도 잘 되고 결실도 풍부하기를 바라며 ‘발화대(發花臺)’, ‘바르대’라 불렀다. 마을이 둘 가운데 있어 ‘농촌리’라 부르기도 했다. 1914년에 금광면 농촌리였다가 1998년 4월 1일에 안성1동으로 편입되어 발화동이 되었다.

## ⑧ 봉남동(鳳南洞)

막골, 마골, 마학골

비봉산(飛鳳山) 남쪽이라 ‘봉남정’이라 부르다가 1947년에 일본식 동명 변경을 해서 봉남동이 되었다.

### 1) 봉남동1통

막다른 골짜기란 뜻으로 골짜기 곡(谷)을 붙여 ‘막골’이라 불렀다.

조선시대 안성장시가 발달하면서 천민들이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더 이상 양반 밑에서 살기 싫어진 천민들은 비봉산 아래 동곡(東谷)에 새로 터를 잡았다. 야산과 계곡에서 말을 많이 길러서 ‘마골’이라고도 불렀다.

비봉산(飛鳳山) 동남으로 있는 산은 마학산이라 한다. 여기에 유래하여 ‘마학골’이라 부르다가 ‘마골’이 되었다.

### 2) 기타

장기리

본래 안성군 동리면 지역

안성장이 서서 장터, 장기(場基)라고 불렀다.

1914년에 물문거리, 창전리, 반포를 병합하여 읍내면(안성읍)에 편입되었다.

1943년에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갈라서 대화정, 명치정, 소화정 1정목, 성남정, 반포정, 오천정이라 불렀다. 1947년 대화정 ⇨ 낙원동, 명치정 ⇨ 창전동, 소화정1정목 ⇨ 신흥동, 반포정 ⇨ 아양동으로 바뀌었다. 나머지는 정을 동으로 고쳤다.

### ⑨ 봉산동(鳳山洞)

안성의 동쪽 끝에 있어 ‘등대모퉁이’라 불렀다.

1943년에 비봉산 이름을 따서 ‘봉산정’이라고 부르다가 1947년에 봉산동으로 바뀌었다.

현재 지명인 ‘봉산’은 지금 안성시청이 있는 곳이다. 원래 그곳은 공동묘지였는데, 봉황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라 ‘봉산’이라 부른 것이다.

### ⑩ 성남동(城南洞)

안성시장과 함께 우시장도 크게 발달해서 ‘쇠전거리’, ‘안성장’, ‘우시장’이라 불렀다. 1943년에 장기리 일부를 갈라서 ‘성남정’이라 하다가 1947년에 정을 동으로 고쳐서 성남동으로 고쳤다. 현재 우시장은 계동에 있다.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에서 나는 물건이 장터(안성장)에 모였다. 서울보다도 유기, 농구, 절구 등 세 가지가 더 있어서 팔도의 장사꾼이 모이던 곳이다. 각 도의 돈 계산법이 달라 떠드는 소리가 요란하여 ‘안성장 윗머리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후 경부선이 들어오며 물산이 각지로 분산되었다. 안성장 자리는 현재 주택가로 변했다.

### ⑪ 송인동(崇仁洞)

본래 안성군 동리면 지역

물레방아가 있어 ‘물방앗골’, ‘수용골’, ‘송용골’등으로 불렀다.

또, 삼국시대부터 있었다는 송용(崇龍)이란릉(陵)에서 이름이 유래 되어 ‘송농골’

이라 부르기도 한다. 송인동은 향교(鄕校), 동헌(東軒)과 부마비(不馬碑)사이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었다.

고을 원이 있는 곳은 부마비(不馬碑)에서부터 말이나 가마에 내려 걸어서 가야 한다. 부마비(不馬碑)가 있는 곳에 송능골이 있어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높이 숭상하는 곳이라 ‘송용골(崇陵골)’이라고 불렀다.

1914년에 교동을 병합하여 동리라해서 읍내면(안성읍)에 편입되었다. 1943년 동리 일부를 갈라서 ‘송인정’이라 하다가 1947년에 정을 동으로 고쳐서 송인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마을은 송인1통과 송인2통(동신아파트)가 있었다.

## ⑫ 영동(榮洞)

본래 안성군 서리면 지역

벌판이라 ‘벌말’, ‘평촌’이라 불렀는데, 1914년에 계촌리로 편입되고, 1943년에 계촌리 일부를 갈라 영정이라 불렀다. 1947년에 일본식 동명 변경에 의해 정을 동으로 고쳐 영동이 되었다.

영동 1통은 안성시 중앙이다. 마을에 빈민이 없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 영동이라고 불렀다.

## ⑬ 옥천동(玉川洞)

본래 안성군 동리면 지역

안성천보의 물문이 있던 곳이라 ‘물문거리(물목거리)’라 불렀다. 안성장 위에 있어 ‘장터 윗거리’, ‘장터 윗머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1914년에 장기리에 편입되고, 1943년에 장기리 일부를 갈라 옥천정이라고 하다가 1947년에 일본식 동명 변경에 의해 옥천동이 되었다.

#### ⑭ 창전동(倉前洞)

본래 안성군 동리면 지역

창고 앞이라 ‘창앞’, ‘창전’이라 불렀다.

이 마을은 안성시장의 중심부로 질 좋은 쌀이 많아 ‘싸전거리’라 부르기도 했다.

1914년에 장기리로 편입되고, 1943년에 장기리 일부를 갈라 ‘명치정’이 되었다.

1947년에 일본식 동명 변경을 할 때 예전 이름을 따서 창전동으로 고쳤다.

#### ⑮ 현수동(玄水洞)

본래 안성군 가동(가지곡)면 지역

마을 숲속에 배(舟)같이 생긴 검은 바위가 있어서 마을이름을 ‘검은바위’, ‘현암’, ‘검은배’라고 불렀다. 또, 물이 마을을 감돌아 흘러 ‘현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1914년에 수용촌을 병합하여 현수리라 해서 금광면에 편입되었다. 1998년 4월 1일, 안성군에서 안성시로 승격되고 현수리가 안성1동으로 편입되며, 현수동으로 바뀌었다.

## 안성에서 유래된 말

### ① 안성유기

죽산면에 장면사지라는 절에서 탐지석이 나왔다. 고려시대 탐지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장면사지는 관음당이라는 옛날 절터인데, 죽산면 개인 집 마당에 파손된 불상이 남아있다. 탐지석에 통화 15년(997년) 정유 4월 27일에 유기장 지미지라는 기록이 쓰여 있다. 이를 보면 죽산지역에 전문 유기장이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국장도감, 가례도감을 보면 국가 행사할 때 안성유기장을 징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유기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안성유기장에서 유기를 사 가거나 궁궐에 유기장을 불러다 직접 만들게 했다. 궁궐 내에 유기장이 3명 있었다.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날을 받아놓고 하니 유기장 제작에 문제가 없었다. 장례식은 급작스럽게 해야 하니 급하게 유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안성에서 주문해야 했다.

주물 유기를 만들려면 고운 흙이 필요하다. 안성에서는 주로 김포나 아산만 쪽에서 부드러운 흙을 가져다가 유기를 만들었다.

유기는 제작 기법에 따라 쇳물을 녹여서 그릇 형태로 만드는 주물유기(통쇠), 놋쇠를 메로 쳐서 만드는 방짜(놋쇠)로 나뉜다. 예전에는 유기 제작 방식이 방짜였는데, 1900년대를 기점으로 주물 방식으로 바뀌었다. 일본산 도자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방짜유기의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주물 유기만 남게 된 것이다. 방짜는 두드려서, 주물은 쇳물을 틀에 부어서 깎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판소리 <놀부>, 고소설 《춘향전》, 《이춘풍전》, 《수영야류》 등에서 부자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통영반에 안성방짜유기’라는 대목이 나온다.

안성1동 김수영 유기장이 지금까지 대를 이어 유기를 만든다. 김근수 유기장이 돌아가시고, 현재 김수영(무형문화재 77호) 유기장이 안성마춤 유기공방을 지키고 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유기를 많이 썼다. 안성에서 제사지낼 때 쓰는 제기용품도 대부분 유기를 사용했다. 안성에 있는 식당이 안성유기의 전통을 지킨다며 유기종지를 쓰던 때도 있었다.

유기는 제기용품, 생활용품, 반상기용품, 혼수, 절에서 사용하는 용품 등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나뉘 볼 수 있다. 제기용품에는 대접, 제줏잔과 제잔대, 접시, 적들, 퇴줏그릇, 촛대, 향로 등이 있고, 생활용품에는 수저, 주발, 보시기, 종지, 주걱, 담뱃대, 낫대야, 화로 등이 있다. 장식품이나 관광 상품으로 학, 사슴, 황소, 재떨이, 마패, 범종 등도 안성유기로 제작된다.



안성유기 사진출처 : <안성시지2>

## ② 안성맞춤

사람들은 조건이나 상황이 어떤 경우에 잘 어울릴 때, 요구나 생각대로 잘 되었을 때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쓴다.

조선시대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안성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곤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안성에서 유기를 맞추면 하나같이 마음에 들어 했다. 안성유기가 알려진 데는 보부상의 역할도 컸는데, 유기를 짊어지고 다른 지역을 돌며 팔았기 때문이다.

안성에서 서울 양반가 그릇을 도맡아 만들면서 안성 유기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

다. 유기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릇인 장내기와 관청이나 양반가에서 주문해서 쓴 질 좋은 모춤(마춤)이 있었다. 그래서 안성에서 유기를 맞추면 마음에 든다는 뜻으로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 ③ 트집잡다

안성은 예전부터 수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안성장 입구에 있는 ‘도구머리’는 도기동(안성2동)의 옛 지명이다. 이 마을은 갓 수선으로 유명했다. 갓에 구멍이 나면 흠집 난 곳을 도려내는데, 이것을 ‘트집’이라고 한다. 도구머리에 사는 갓 수선 장인들이 트집을 크게 잡아 갓 수선을 했다. 수선 기법은 뛰어났지만 그에 따라 수선비가 비쌌다. 비싼 수선비로 다툼이 생겨도 장인들은 수선비를 양보 없이 다 받아냈다. 그때부터 조그만 흠집을 들추거나 크게 만드는 것을 ‘트집잡는다’에 빗대어 표현했다. 또한 별 거 아닌 일에 트집을 잡는 사람을 ‘도구머리 친구’라고 불렀다.

### ④ 안성장 윗머리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에서 나는 물건이 장터(안성장)에 모였다. 유기, 농구, 절구 등 세 가지가 서울보다 더 있어서 팔도의 장사꾼이 모이던 곳이다. 안성장에 모인 장사꾼들은 도마다 돈 계산법이 다른 탓에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느라 떠드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래서 말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을 보면 안성장에서 거래하는 장사꾼에 빗대어 ‘안성장 윗머리냐’는 말이 나왔다.

### ⑤ 안성탕면

안성장과 함께 발달한 것이 우시장이었다. 예전에는 성남동을 ‘쇠전거리’, ‘안성장’, ‘우시장’이라 불렀다. 농심은 안성에 공장을 짓고, 쇠고기 맛이 나는 라면 스프를 만들었다. 폭 고아낸 사골 국수라는 의미와 라면에 공장이 있는 지역이름인 안성을 합쳐 ‘안성탕면’이라고 짓고 1983년 9월에 출시되었다.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memory in Anseong project



# 3

## 안성1동 사람들

- ① 안성에서 최초, 제일예식장 \_이재용 님
- ② 안성 도보 성지순례길 추진단장 \_유승덕 님
- ③ 안성1호 문구점 재건문구사 \_홍원흥 님
- ④ 행복을 전달하는 라온제나봉사단 \_연기일 님
- ⑤ 한일광고, 안성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_구본경 님
- ⑥ 3대째 운영 심준식방앗간 \_이영균 님
- ⑦ 지금은 사라진 명신빵공장 \_심윤석 님
- ⑧ 1972년부터 이어온 도림목재 \_이인숙 님

1

안성에서 최초,  
제일예식장

이재용 님  
(1962년생)



결혼식이 끝나면 하객들이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안일옥, 영동식당, 풍년집 등이 주말마다 예식장 손님들로 가득 찼죠.

## 1960년대 제일사진관

제 고향은 안성시 서운면 인리에요. 인리는 아버지(1934년생) 고향이기도 하죠. 제가 4살 때쯤 명륜동 안성향교 쪽으로 이사 왔어요. 지금 안성성모병원 자리에 3층 목조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에 서울한의원이 있었고 2층에서 아버지가 제일사진관을 운영 했어요.

옛날에는 사진 보정 방식이 지금과 달랐어요. 연필을 가늘게 깎아서 원판 필름 위에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포토샵 사진 보정이라고 보면 되요. 아버지가 그림을 참 잘 그리셨어요. 그리고 완벽한 걸 추구하셔서 사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인화한 사진이 십 년 가도 그대로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옛날에는 원삼입고 족두리하고 집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회갑 잔치도 집에서 열었던 시대예요. 아버지가 사람들 기념사진을 찍어주려고 자전거 타고 이집 저집 출장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주로 예식 할 때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예식장 사업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 1969-70년, 안성시 최초 제일예식장을 열다.

아버지가 안성시 최초로 예식장을 열었어요. 옛날에 안성금물점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문 닫은 맥도날드 자리(안성시 중앙로 389번길 6) 2층에서 제일예식장을 시작했어요. 지금 그곳에는 이마트24R 안성명동점이 있어요. 건물 계단이 얼마나 좁은지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가면 겹칠 정도였어요. 대략 4~5년 정도 운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사진관을 하면서 제일예식장을 같이

하셨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기 위해서 예식장을 차린 거니까요. 지금이야 사진 비용보다 식대나 드레스, 꽃 장식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오로지 사진이었어요.

## 두 번째로 연 신원예식장

1974년에는 아버지가 신원예식장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일예식장 운영이 성공하면서 현재 이재용공인중개사사무소(안성시 중앙로 413) 자리에 신원예식장을 지은 거죠. 안성유지들이 다 이곳에서 결혼했다고 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예식장이 신원예식장뿐이었으니까요. 있는 집이야 예식장에서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보통 집에서 원삼입고 족두리하고 결혼했죠.

사람이 밀리니까 주말에 30분 간격으로 식을 진행했어요. 사진은 아버지가 찍으셨어요. 당시에는 4판 내지 5판 찍어요. 신랑·신부, 부모님,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정도만 찍는 거예요. 지금은 한 10판씩 찍을 거예요.

예식을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할 때도 있었으니 주말이면 15건-20건씩 예식이 끊이지 않았어요. 토요일 20건, 일요일 20건 더 넘게도 했었어요.

저도 신원예식장에서 식을 올렸어요. 아버님 친구분이 주례를 봐주셨고요. 결혼식이 끝나면 하객들이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안일옥, 영동식당, 풍년집 등이 주말마다 예식장 손님들로 가득 찼죠.

1970년 후반, 아마 1979년에 농협예식장도 함께 운영했어요. 신원예식장 홀이 두 개, 농협은 홀이 한 개였다가 나중에 두 개로 늘어났어요. 아버지가 신원예식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저는 농협예식장에서 찍었어요.

신원예식장  
미장원

신원예식장





1972년 신원예식장 사진준처 : <안성시지 8>



이재용 공인중개사 사무실(구. 신원예식장)

## “안성 유지들은 모두 이곳에서 결혼했어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신원예식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고려, 신라, 명동예식장 등이 들어왔어요.

그때 예식 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막아뒀던 창문을 열고 난리였어요. 불이 자주 나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건데, 그때는 “또 불 나갔네?” 그러면서 이해해 주던 시절이었죠. 간혹 촛불 켜놓고 예식 한 적도 있어요. “발전기를 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아무튼 그 팀이 예식을 하고 나가야 다른 팀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밀리면 안 되니 바쁘게 진행됐어요.

한 팀 예식이 끝나면 하객들이 안일옥, 영동식당, 풍년집 등 근처 식당으로 가서 식사했어요. 하객이 워낙 많아 한 식당에서 다 못 먹으니 두 곳 정도로 나눠서 갔을 거예요. 주로 잔치국수가 나왔어요. 사실 한 번 예식을 하면 식당에서 돈을 더 많이 벌었죠. 예식이 30분 차이로 있으니, 손님이 계속 들어왔을 테니까요.

그땐 안성 시내가 다 비포장도로라 예식 끝나고 바닥을 쓸면 흙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비가 오면 더 난리였죠.

## 가족이 함께 운영한 예식장

어머니(1936년생)는 어케너머로 배운 방법으로 부케와 코르사주를 만들었어요. 여동생은 피아노 연주를 했죠. 여동생이 신부 뒤에서 드레스 잡아주는 일도 했고요. 이모(어머니 동생)는 미용실을 해서 화장을 해줬어요. 저는 아버지를 도와 사진을 찍었는데 아버지는 주로 신원예식장에서, 저는 농협예식장

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정이 생기면 외부에서 사진사가 오기도 했고, 비디오 촬영은 외부 업체를 썼어요.

농협은 주로 용역 도우미를 썼던 것 같아요. 폐백실에도 도우미가 필요하잖아요.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일했는데도 손이 모자랐어요.

예식 비용이 처음에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생각해 보면 꽤 많이 들었네요.

나중에는 사진 찍는 것보다 드레스 대여비가 더 돈이 됐어요. 결혼식을 하면 드레스는 무조건 빌려서 입잖아요. 그런데 빌리는 값이 싸지 않거든요. 새로 들인 드레스를 입는 사람은 보통 시중가의 반값 정도로 드레스 대여비를 내야 했어요. 그다음부터 조금씩 대여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략 50~70만 원이었어요. 물론 들여온 지 오래된 드레스는 10~20만 원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새로 나온 드레스 입고 싶어 하잖아요.

1986년도쯤 예식장비 30만 원, 화장 20만 원, 부케 10~15만 원, 사진은 컷당 5만 원이었는데 나중엔 10만 원까지 받았던가. 보통 사진을 4컷 찍는데 폐백을 하면 10컷까지 찍으니까 그것도 50~60만 원 들었겠죠. 도우미 비용도 10~20만 원, 미용비 20만 원, 연주비, 비디오 촬영비 등 뭐 세세하게 들어요. 그러니 다 합치면 한 번 결혼하는데 200~30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식당으로 옮겨서 식사하니 식사비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있는 집만 결혼식장에서 결혼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축의금을 받으니까요.

평일에 예식을 예약 받고, 주말에는 예식 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보통 주말에 놀러 많이 다니는데 우리 가족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평일에는 예식이 없으니, 탁구장을 운영했어요. 학교에 탁구부가 있을 정도로 탁구가 유행이었

거든요. 아버지가 노력을 참 많이 하셨어요. 탁구장이 있으니까 저도 탁구를 했고 초등학교 때 선수 생활도 했었어요.

##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흔적

2004~2005년쯤 예식장 사업을 모두 접었어요. 안성 시내에서 결혼하기 불편해지고 외부에 예식장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예식장이 대형화되었고,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때 사진관도 같이 정리했어요.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니 손을 놓게 된 거예요.

주변 예식장도 비슷하게 도태되고 없어졌네요. 시내에 있던 예식장은 다 문을 닫았어요.

신원예식장 폐업 후 병원이 들어왔고, 양복점도 하다가 지금은 보시다시피 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②

안성 도보 성지순례길  
추진단장

유승덕 님  
(1961년생)



공베르 신부님이 안성성당에서 공세리, 안성성당에서 죽산성지,  
안성성당에서 베틀성지까지 걸어간 길을 성지순례길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6차에 걸쳐서 길을 답사하고 지금 완성 단계에 있어요.

## 서운면 오촌리에서 안성1동으로

저는 1960년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동네는 포도 주산  
지고 안성에서 제일 높은 서운산자락에 있어요. 바우덕이 고향이기도 해요.  
안성시 서운면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계 지점에 있는 마을이라 제 말투가  
충청도 사람들과 비슷하죠.

저는 서운초등학교를 다녔고, 서운중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안성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공직 생활을 40여 년 했어요.

1986년도 제가 26살 때 안성 양성면 미리내성지 쪽이 고향인 아내를 만나 결  
혼했어요. 장모님이 성당에 다녀야 한다고 해서 세례받고 혼배성사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안성1동에서 죽 살고 있어요. 저는 일하면서 죽  
산이나 원곡, 보개 등지에도 많이 다녔어요.

현재는 이재용 님과 같은 사무실에서 길마행정사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 어릴 적 기억나는 안성1동 풍경

시내는 안성 사람들의 주 생활권이었어요. 시내에 나와야 시장, 은행, 학교 등  
을 다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비포장도로를 걸어 시내  
까지 왔던 기억이 나요. 자장면 얻어먹으려고요. 옛날에는 자장면에 왜 그런  
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때도 영흥루가 있었어요. 백년가게라고도 하잖아요.  
그 옆에 또 무슨 짜장면집이 있었고, 은성다방도 있었어요.

안성시장이 엄청나게 컸어요. 시내에 우전거리라고 우시장도 있었거든요. 소한 마리면 옛날에 땅을 몇 마지기 살 정도로 비쌌어요. 장이 서는 날에 주변 상가들이 다 번창한 거예요. 천안, 진천이나 평택, 용인에서도 안성시장에 장 보러 왔어요.

옛날에는 안성시장이 활성화되어 마을이 활기찬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고�령화에 저출산으로 침체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많이 없으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제라고 봐요.

## 서운산 둘레길 조성

제가 서운 면장을 하면서 서운산 둘레길 조성을 했어요. 총 24km를 5개 코스로 나누었는데, 농촌풍경이 있는 길, 휴식명상안성맞춤길, 잣나무길, 포도밭 사이로, 바우덕이 산책 마을로 주제를 설정했어요. 2013년에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하고 보니 서운산 절경이 제주 올레길에 뒤지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안성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운산 둘레길을 조성했어요.

## 안성 도보 성지순례길, 공베르길

양투안 공베르 신부님이 사교천 공세리 성당에서 안성까지 온 길, 안성성당에서 선교한 길이 있어요.

공베르 신부님은 안성포도를 처음 들여온 분이예요. 안성을 빛낸 인물 4인이 김태영 사회운동가, 양투안 공베르 신부, 이유석 독립운동가, 홍계남 조선 중기 의병장인데 안성맞춤랜드 야외에 흉상이 있어요. 그중 공베르 신부는 안성성당에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성당을 건축하고 안법학교를 설립한 분



안성성당



안성성당

이에요. 안성포도 최초 전래자로, 이때부터 안성포도가 자리 잡았죠. 동신아파트 앞에 가면 포도 농장과 관련하여 꽃말을 볼 수 있어요.

공베르 신부님이 안성성당에서 공세리, 안성성당에서 죽산성지, 안성성당에서 배티성지까지 걸어간 길을 성지순례길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6차에 걸쳐서 길을 답사하고 지금 완성 단계에 있어요.

제가 안성 도보 성지순례길 추진단장이고 추진단 4명이 함께 했어요. 이재용 통장님도 함께했죠. 처음에 순례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뜻이 좋으니깐 한 번 같이 해보자고 해서 추진하게 된 거예요. 순례길 조성을 202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깐 3년 차가 되었네요.

처음에는 새벽 3시에 출발해서 걷고 등산하며 46km를 왔다 갔다 했어요. 한 40km를 걸으니,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지만 제가 먼저 코스를 정하고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제가 먼저 답사 다녀온 다음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천, 산, 능선을 따라 걷는 길도 있지만 도시가 개발되면서 4차선 도로로 바뀐 곳도 있어서 안전한 길을 찾아 미리 다녀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함께 다녀야 할 곳이니 안전한 길을 찾아야 해요. 물론 먼 길을 오가면서 허벅지가 쓰리고 아프기도 했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깐 한 거예요. 봉사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총무도 했지만, 현재 소공동체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누가 억지로 시킨 일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지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 안성 도보 성지순례길 추진단 활동 기록

2021년 4월 24일 안성성당-배티성지(18km) 답사 4명 참석

2021년 5월 1일 안성성당-미리내성지(22km) 답사 3명 참석

2022년 1월 20일 안성성당-죽산성지(23km) 답사 2명 참석



2022년 4월 30일 안성성당-죽산성지 도보성지순례 7명 참석

2022년 6월 1일 안성 도보성지순례길 추진단 구성 (추진 단장 : 유승덕 마태오, 추진 부단장 : 주명기 대건안드레아, 추진 사무국장 : 장호균 다미아노, 추진 재무국장 : 권춘원 요셉)

2022년 6월 4일 안성성당-배티성지 도보성지순례 54명 참석

2022년 6월 16일 추진단 간담회

2022년 7월 6일 안성성당-미리내성지 도보성지순례 20명 참석

2022년 11월 26일 안성성당-공세리성지(23km) 도보성지순례

2023년 4월 1일 대추리 평화마을-공세리 성당(23km) 6시간, 42명 참석

2023년 4월 29일 어농성지-죽산성지(15km) 4시간, 35명 참석

2023년 5월 27일 배티성지-성거산성지(18km) 7시간, 32명 참석

2023년 6월 24일 은이성지-미리내성지(11km) 5시간, 33명 참석

2023년 7월 29일 서운산 유왕골 교유촌(5km) 3시간, 36명 참석

3

안성1호 문구점  
재건문구사

홍원홍 님  
(1939년생)



학생들이 일찍 와서 갈 데가 없고 물건 살 곳이 없으니 내가 문을 열어야  
아이들이 좀 편하잖아요. 겨울에는 연탄난로를 피워서 몸을 녹이고 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 항상 일찍 문을 열어야 했죠.

## 1968년 재건문구사를 맡게 되기까지

제 고향은 천안이에요. 결혼해서 천안에서 살다가 1968년에 안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처남이 먼저 재건사를 운영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가 맡게  
된 거예요. 저는 천안에서 사업 운영하며 딸 둘 낳고 살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을 모셔야 하고 재건사도 직접 운영해야 할 상황이라 안성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안 사람이 무척 고맙게 생각했어요. 안성에 와서 딸 셋에 막내아들을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처음에 처남이 운영하던 재건사를 이어서 시작했을 때 재건사에 물건이 거  
의 없었어요. 저는 대천동 수도악기사 근처에 살림방을 얻어서 지내며 재건  
사를 운영했어요. 대천동에서는 한 6개월 살고 나왔어요. 제가 가게를 맡은  
이후에 정말 장사가 잘되어서 1971년도에 송인동 191번지, 현재 담소원 위쪽  
근처에 집을 샀어요. 당시에 다 초가집이었는데 슬래브집 한 채를 짓는 걸 보  
고 제가 샀어요.

## 다섯 할머니와 한집에서 생활하기

송인동 슬래브집에서 장모님과 어머니를 함께 모셨어요. 어머니가 50세부터  
앞을 못 보셨거든요. 좋은 안과에 가도 안 되더라고요. 장모님 여동생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매일 우리 집에 계시고, 장모님의 이모님도 있었어요. 이모님  
이 옛날에 왕 옷, 이불 짓던 할머니거든요. 또 나를 중신했던 할머니도 갈 데  
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보개면에서 이집 저집 다니면서 콩이  
나 고추 따주고 일 봐주던 할머니인데 그때는 돈은 관두더라도 먹을 것만 챙

겨주면 됐었어요.

우리 집에 할머니가 다섯 명인 거예요. 아내가 점심때 밥을 해서 문구사로 배달해 주면 할머니들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줘요. 막내아들 낳았을 때 좋아해 주시고, 아이들도 잘 봐주셨어요. 동네에서 우리 집을 노인정이라고 불렀어요.

## 안성 1호 문구사 '재건사'

처음 문구사 이름은 재건사였는데, 건축 사업하는 곳인 줄 알고 자주 문의 전화가 와서 5년 만에 재건문구사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재건사라고 불렀어요.

제가 문구사를 할 때는 주변에 문구사가 없었어요. 이후에 금성당, 보문당, 상구사, 구일 상회 등이 들어왔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문구점도 재건문구사예요.

근처에 농협, 읍사무소, 면사무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다 있으니, 장사가 잘되었어요. 연말, 연초가 되면 결재도장이나 인주를 싹 바꾸거든요. 몇백 개, 몇천 개를 바꾸잖아요. 평택농협에서도 우리 문구사를 이용했어요. 예전에는 돈다발은 종이 끈으로 묶었는데 시골에서는 잘 안 만들거든요. 사무실에 필요한 물건은 문구점에 다 있었어요. 지금도 팔다 남은 사무용품이 집에 남아 있어요. 돈 찍어내는 금액기나 등사기, 칠판 등도 여태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등사기로 밀어서 시험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글자가 잘 안 보이기도 했죠. 명륜중학교 시험 기간이면 제가 일 톤 반짜리 차에 시험지를 싣고 가져다줬어요.

재건

문  
구  
사



2890

## 선물로 노트를 주던 시절

개학하면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준비물로 필수 노트 16권을 가져가야 해요. 그러면 제가 미리 16권씩 포장에서 쌓아 놔어요.

주변 아는 사람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학교 졸업하면 선물로 많이 줬던 게 노트예요. 주로 노트 16권을 선물하는 거죠. 중·고등학교는 노트 양식이 같거든요. 노트를 차에 잔뜩 싣고 와도 3~4일이면 다 나갔어요. 입학하면 노트 검사를 하니까 무조건 사야 하는 학용품 중 하나가 노트였어요.

## 매일 학생들이 찾는 문구점

지금이야 학교에서 문구류를 일부 주지만 당시에는 무조건 문구점에서 사서 써야 하니 아이들이 매일 와서 학용품을 샀어요. 연필, 지우개, 노트도 다 사서 쓰던 시절이었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일 가져올 준비물을 말하면 아이들이 집에 가는 길이나 등갓길에 문구점에 들러 사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문구사 문을 열고 10시에 닫았어요. 아이들이 안성읍 내로 와서 학교 가는데 문구점이 아니면 준비물을 살 데가 없잖아요. 당시 천안에서 안성으로 기차가 다녔어요. 학생들이 천안시 입장면에서부터 기차를 쪽 타고 오거나 안성시 죽산면, 금광면에서도 버스 타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미양면 사는 아이들은 6시 30분이면 안성역에 도착해요. 학생들이 일찍 와서 갈 데가 없고 물건 살 곳이 없으니 내가 문을 열어야 아이들이 좀 편하잖아요. 겨울에는 연탄난로를 피워서 몸을 녹이고 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 항상 일찍 문을 열어야 했죠.

##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시선을

아이들이 너무 많이 물건을 사러 와서 돈을 받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연필 같은 걸 훔쳐 가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저는 알고도 모른 척했어요. 당시에 학용품 진열해 놓던 장이 지금 재건사커피 매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이들이 때로 몰려와서 학용품을 사는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는 물끄러미 구경만 하고 가요. 친구들이 너는 왜 안 사냐고 물어보면 얼버무리고 뒤에서 쳐다보기만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누가 줄 거라고 하는데, 주긴 누가 줘요. 나는 아이들 얼굴 보면 대번에 알거든요. 제가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몰래 스케치북을 쥐여 주기도 했어요. 다음에 돈 있으면 가지고 오고 없으면 관두라고 하면서. 나도 딸 다섯에 아들 하나 키우니까 다 우리 아이들 같잖아요.

학교에서 입학하면 노트 검사를 했어요. 노트, 연필, 지우개는 학교 생활하는데 필수고 크레용이나 스케치북, 물감을 다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정말 힘들었겠죠. 매번 그런 아이들이 눈에 익으니까 몰래 노트 두어 권씩 주기도 한 거예요.

어떤 중3 여학생이 교사인 아버지 따라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학생이 어려운 아이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때 제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몰래 줬어요. 제 나이가 32살이었고 학생들이 15살이었을 때니, 그 학생들이 지금 70대가 되었겠네요.

내가 스승의 날 행사 때 일일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들이 안성중학교 다녔는데 내가 학부모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한 말이 있어요.

‘종신행선(終身行善)이라도 선유부족(善猶不足)이요, 일일행악(一日行惡)이라도 악자유여(惡自有餘)라.’

착한 일은 늘 해도 끝이 없는데, 잘못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 재건문구사를 보내며

1980년 안성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지저분한 가게를 부수고 현대식으로 지었어요. 그전에는 다 쓰러져 가는 기와집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자리에 건물을 짓고 2018년까지 재건문구사를 운영한 거예요. 요즘에는 조달청에서 사무용품을 납품하고 학생들이 학용품은 거의 사지 않으니, 문구점이나 인쇄소가 잘 안 돼요.

제가 60세에 문구사를 관둔다고 했었거든요. 큰딸이 천안에서 금성대리점을 했었는데 IMF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1998년에 재건문구사를 딸에게 넘겨준 거예요. 둘이 합쳐서 문구사를 오십여 년 운영한 거죠. 2018년에 점포 정리를 했는데, 다음 해에 카페가 들어왔어요. 카페에 내가 쓰던 물건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그때 기억과 시간이 여전히 귀중하게 느껴지네요.



4

## 행복을 전달하는 라온제나봉사단

연기일 님  
(1963년생)



봉사하면서 장비 챙겨서 다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긴 하지만,  
봉사할 땐 힘들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봉사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안성에서 태어나서 안성초등학교, 안법중학교를 졸업하고 평택공고에 들어갔어요. 당시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일반대학학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공업 계열학교라 선생님들이 전문대 화공과를 추천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1987년에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자동차에 입사해서 33년 간 근무하고 2019년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2020년 여름부터는 40여 년 넘은 전통 분식집인 중앙스넥에서 누님 일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어요.

## 악기와 함께해 온 시간

제가 고등학교 밴드부에서 클라리넷을 불었어요. 오케스트라에 꼭 끼는 악기 중 하나가 클라리넷이거든요. 마에스트로가 지휘자면, 오케스트라를 관리하는 대장은 클라리넷 아니면 바이올린 둘 중 하나인데, 클라리넷이 우선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저는 군대에서 군악병이라는 주특기를 가지고 클라리넷을 불었어요.

## 안성초등학교 상징 '느티나무' 봉사단

은퇴 후 색소폰을 부는 사람이 많았어요. 15년전 쯤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퇴 후에 뭘 할지 생각하다가 어릴 적 해왔던 악기가 떠올랐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악기나 음악에 관심 두기보다는 노래방 가고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정도로 즐기지만 했거든요. 악기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 악기 다루던 재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 취미로 색소폰을 사서 불게 됐어요.

색소폰을 취미로만 하기엔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력을 향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클라리넷이나 색소폰이나 같은 리드악기다보니 색소폰도 웬만큼 붙었어요. 악기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안성초등학교 동창들과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재능기부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악기와 음향 장비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 동창들이 각자 사회나 댄스 등 역할을 맡았어요.

저는 2014년 9월경 봉사단을 시작했는데, 2년 반~3년 정도 운영했죠. 그러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봉사단을 해체했어요.

“2014년에 안성초등학교 동창 10명 정도가 모여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공연 봉사를 했어요.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모은 거죠. 저는 하모니카를 불고 다른 친구들은 색소폰이나 폼바, 사회, 댄스 등 각자 역할을 맡아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했어요. 처음엔 뒤에서 손뼉 치고 분위기만 잡았는데, 생각해 보니 하모니카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시작했고, 3~4년간 활동했어요.”

- 구본경 님(1962년생) 인터뷰 발췌

## 느티나무봉사단에서 라온제나봉사단으로

2016년 10월에 느티나무봉사단에서 활동했던 친구들 일부와 안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라온제나봉사단을 만들었어요. 악기연주, 국악, 힐링체조, 스포츠 댄스, 통기타, 한국무용 등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 봉사단을 창단한 거예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재능기부하는 날로 정했어요. 코로나 19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은 주간보호센터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요양원, 요양병원, 소외된 이웃, 장애인 시설 등 다양한 곳에 재능기

부 공연을 하러 다녔어요. 예전에는 이·미용봉사도 했는데, 코로나19가 생긴 이후부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봉사하면서 장비 챙겨서 다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긴 하지만, 봉사할 땐 힘들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봉사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하지 말아야죠. 그럴 거면 나 편한 대로 살아야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의 힐링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마음에서 우리나라와야 오래할 수 있어요.



5

한일광고,  
안성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경 님  
(1962년생)



길에서 한참 간판에 글씨 쓰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문득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글을 쓰는 작업이 재미있어 보였어요.

저는 영동 446-5번지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살고 있어요. 할 아버지가 서울 종로구 창신동이 고향인데, 6·25 때 이쪽으로 피난 내려오면서 쪽 살게 된 거죠. 능성 구씨 종중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자리 잡았고, 할아버지는 수리조합에서 근무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기반 공사라고 하죠. 일하시면서 안성에 집을 사서 살 때 저희 아버지가 태어났죠. 그리고 아버지가 결혼하고 제가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성초등학교 64회 졸업생이고, 안청중학교, 안법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젊었을 때는 먹고살기 바빠서 지역에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고향에 계속 머무르다 보니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미술 쪽을 해서 통장님이 벽화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안성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되었어요. 벽화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어떤 그림을 넣으면 좋을지 제안도 하고, 참여하다 보니 관심이 생겼거든요.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에 도움이 되면 좋으니까요.

## 미술에 대한 관심

저는 원래 미술 쪽에 취미가 있어서 미대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거의 순수미술뿐이었어요. 지금이야 디자인 쪽으로 분야가 넓잖아요.

미대 간다고 선언했을 때 집에서 난리 났었어요. 아버지부터 집안 작은아버지까지 오셔서 미대에 가면 굶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는 말을 무릎 꿇고 앉아서 계속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미대를 가면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작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밖에 할 게 없었어요. 아니면 밖에서 그

림 그리는 일 뿐이었어요. 제가 안법고등학교 인문계를 다녔으니 미대 나와서 뭐 하려고 하나며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대학을 포기했어요.

## 어깨너머로 배운 현수막 글쓰기

그런데 제가 20살, 21살 때쯤 군대 가기 전에 우연히 경기문예공사라는 간판 집(現 GS마트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포목점에서 긴 민 나일론을 사서 가장자리를 재봉틀로 박아서 현수막을 만들었거든요. 천 끝에 나무 막대를 끼워서 못을 박아요. 길에 짝 펴치고 한 가운데에 합판을 세로로 세워서 끼워 놓으면 팽팽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붓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박영환 사장님이 현수막에 글 쓰는 모습을 구경하는 데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보통 밑 작업 해놓고 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줄도 안치고 그냥 쓰더라고요. 제가 1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지켜봤어요.

길에서 한참 간판에 글씨 쓰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문득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글을 쓰는 작업이 재미있어 보였어요.

서운산 정상에 산불 조심 표지석도 박영환 사장님 글씨인데 참 잘 쓰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고모네 사돈이라 사촌 누나를 찾아가서 일 좀 배우게 소개해달라고 말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그분 밑에서 1년 동안 일했어요. 기술은 안 가르쳐주니 옆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글 쓰는 모습을 유심히 봤죠. 제가 포목점에 가서 천을 끊어 와서 재봉한 뒤에 가져오고, 나무를 끼워서 바닥에 펼쳐 놓으면 선생님이 글을 써요. 절대 요령은 안 가르쳐주니까 제가 눈여겨보는 수 밖에 없어요. 넓은 붓으로 쓰니까 획을 굵는 방법이 일반 붓글씨와 다르거든요. 안료와 원액을 배합해서 쓰는데 어느 정도 섞어서 쓰는 지

도 유심히 봤어요. 5-6시가 되면 사장님이 퇴근하면서 저보고 정리하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 시간인 거예요. 안료를 가져다 놓고 색깔을 만들어 봐요. 원하는 색이 안 나오면 버리고 또 타요. 안료가 떨어지거나 분말 가루가 섞이지 않으면 또 방법을 바꿔서 해봤어요. 표시 안 나게 조금씩 안료를 타서 연습했어요. 민 나일론 현수막 천이 비싸니까 신문지를 펼쳐서 테이프를 붙여서 길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간판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돌로 눌러서 연습했죠. 아마 신문지 수만 장쯤 버렸을 거예요. 표시 안 나게 버리고 다음날 또 반복했어요.

사장님이 예전에 안성군청(現 GS마트 자리)에서 필경사로 근무하다가 나와서 간판집을 차린 거라 군청일의 70~80%를 그분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PPT로 현황 보고를 하지만 그때는 전지에 써서 지휘봉으로 짚어가면서 했거든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썼어요. 고딕체 글씨를 삼각자와 매직으로 맞춰서 쓰는데 어떻게 저렇게 쓰나 싶을 정도로 잘 썼어요. 사장님은 삼각자도 본인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일이 엄청 바빴어요. 현수막을 매일 만드니 저는 배우기에 좋은 환경이었죠. 어제 몰랐던 부분을 오늘 가서 보면서 깨우쳐 가는 식이었어요. 붓을 어떻게 돌리는 지까지 어깨 너머로 훑쳐서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술을 잘 안 가르쳐 줬잖아요. 감히 물어보지도 못해요. 사장님이 고등학교 10년 정도 선배님인데 지역사회 어르신이니 대하기 어려웠지요.

## 국가기능사자격증에 도전

군대에 다녀와서 내가 간판 일을 하면 어떨지 생각했어요. 1년 동안 간판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판단한 거죠. 열심히 하면 먹고사는데 괜찮겠다는 생

각이 들어서 바로 군대에 지원했어요. 군대 가려면 신체검사 받고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저는 빨리 갔다 오고 싶어서 해군에 지원했어요. 제대하고 현대광고에 들어가서 1년 근무했어요. 현대광고 사장님도 고등학교 7년 선배였어요. 기사 생활을 하면서 찾아보니 국가기능사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광고도장기능사 1급, 2급, 3급이 있었어요. 옥외광고업을 하려면 산업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광고도장기능사’ 국가 자격증이 필요했어요. 앞으로는 자격증 시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만뒀어요. 제가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을 따겠다고 사장님께 말했다니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1985년에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울 비원 근처에 한국종합기술원이 있었어요. 고속버스 타고 용산 가서 시내버스 타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학원이 끝나면 다시 시내버스 타고 고속버스 갈아타고 집에 왔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시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가기능사시험이 필기와 실기가 있는데 필기에 합격해야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예로 들면 실기 시험을 볼 때 A4용지에 88올림픽 호돌이 마크가 그려진 걸 줘요. 그림을 보고 90×180 크기의 판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색깔을 정해서 바탕부터 마크 색깔, 마크 크기까지 옮겨요. 완성하면 100점인데 감독관이 점검하면서 점수를 깎아나가요. 70점 이상이면 합격인 거예요. 안성춘놈이 서울에 가서 아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친해진 사람 6명과 같이 실기 연습을 했어요. 시험공부를 같이 하던 사람 중 한 명이 문래동에 살았는데, 자기 친구가 문래동에 3층 건물에 산대요. 옥상이 비어 있으니 연습해도 된다고 같이 갔어요. 1층에 목공소가 있어서 옥상에 못 쓰는 나무를 쌓아뒀더라고요. 문제는 그때가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연습하는데 너무 추워서 처참했어요. 옥상에 드럼통난로가 있어서 목공소에 허

락받고, 나무를 얻어서 불을 땀어요. 눈보라 치고 바람 부는 날씨에 난로 통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서 뒤에 합판을 깔고 연습했어요. 불 쪼고 얼른 뒤돌아서 연습하다가 추우면 난로 쪼면서 2개월 연습했어요.

다른 분들은 광고도장기능사를 따려고 처음 학원에 온 거지만, 저는 이미 실전에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제가 하는 걸 보고 어디서 해봤냐고 묻더라고요. 당시에 2급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2급을 보고 1급 바로 해도 되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제가 미술 했기 때문에 색감에도 자신 있었고요. 6명이 같이 시험 보고 저만 최종 합격이 됐어요. 필기에 300명이 붙었으면 실기는 30명도 못 붙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겨울이라 페인트도 금방 얼고 참 힘들었죠.

제가 자격증을 따고 시흥에서 아는 분과 딱 석 달 일하고 안성으로 왔어요.

## 내 가게를 차리기까지

문득 공부를 더 할지, 가게를 차려야 할지 고민이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사는 작은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작은아버지가 안성고등학교 졸업하고 에스콰이어 공돌이부터 시작해서 사장까지 올라간 인물이거든요. 작은아버지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입지전적인 분이예요. 작은 아버지께 제 상황을 말하면서 상담을 청했어요. 저는 더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했더니, 요즘은 빨리빨리 진행되는 시대니 다른 걸 배우고 오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거래요.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하니 가게를 시작하며 배우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1996년 10월 1일, 우리 집 1층에 한일간판을 열었어요. 국군의 날에 가게 개업을 해서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원래 우리 집은 기와집이었는데 저 군

대에 있을 때 건물을 올렸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라 힘들게 사셨어요. 그런데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면 주택은행에서 집을 지을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어요. 거의 천만 원 정도 대출받아서 집을 지었죠. 거의 역지로 집을 지은 거예요. 저 군대 휴가만 나오면 집 짓는데 일손을 보태야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업자 불러서 해결할 형편이 안 되고 웬만한 건 우리가 다 해야 했거든요. 1980년 초에 지은 집에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 기술로 먹고살던 시절

제가 간판업을 시작할 때 동네에 간판 가게가 12군데 정도 있었어요. 우리보다 연세 많은 분이 하고 계셨죠. 그때는 간판 가게에 페인트 가게까지 겸업한 분이 많았어요. 현수막에 그림 그릴 때 페인트를 써서 붓으로 그리니까요. 저는 일하면서 주말만 되면 카메라 들고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서 좋은 간판을 보면 사진 찍고 스크랩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소재가 궁금해서 직접 만져보기도 했어요. 일하면서 디자인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가게를 하면서도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디자인도 해보고, 개발하려고 무척 애썼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디자인을 만들지만, 그때는 연필로 그림 그려서 수채물감으로 색칠했거든요. 간판 디자인도 붓으로 그려서 손님에게 보여줬어요.

지금은 출력기로 현수막을 뽑아내지만, 옛날에는 광고판을 붓으로 일일이 그렸어요. 쬐을 때는 꽤 바쁘게 일했어요. 관공서 현황판조차도 손으로 그리고 썼거든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손기술이 없는 사람도 다 광고업에 뛰어들어서 가격이나 질이 떨어진 거죠. 요즘은 간판이 알루미늄이나 가벼운 소재로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나무를 짜서 푹푹딱딱 기본 판을 만들고, 형광등을 연결했고 아크릴을 사다가 붙였어요. 그런데 만든 간판을 가져다줘야 하잖아요. 차가 없으니 리어카에 간판을 묶고 자전거를 연결해서 다녔어요. 자전거에 사다리도 신고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도 못해요. 멀리 가야 할 때는 용달을 부르지만, 비용이 들잖아요. 소비자에게 용달차 비용을 첨부할 수 없고 간판 값에서 배송비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접 나섰어요. 자전거로 배달하다가 조금 나아져서 오토바이에 리어카를 묶어서 다녔어요. 어떤 때는 남동생이 오토바이 운전하고 가면, 제가 뒤에 앉아서 간판 짚어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때 간판 가격은 몇만 원인데 지금은 기본 몇 십만 원이

넘어가죠. 그래도 옛날이 나왔어요. 기술직이다 보니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마진도 더 나왔거든요.

식당 유리창을 선팅해서 메뉴를 적을 때 지금은 컴퓨터 출력해서 붙이면 끝나잖아요. 옛날에는 안쪽에 선팅지를 물로 발라서 삼각자와 칼을 이용해서 글자를 거꾸로 만들어 냈어요. 작업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가게 안쪽에서 작업해야 하니 글자를 거꾸로 써야 밖에서 볼 때 똑바로 보이거든요. 기술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기술이나 기능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비해 떨어지는 거죠.

## 안성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과정

제가 2009년부터 10년 동안 통장을 했어요. 2015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저보고 행사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미술 쪽을 잘하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길놀이행사TF팀을 꾸려서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다들 말로만 이야기하기에 제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서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니 다들 이해가 빠르게 된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해서 2016년에 길놀이 행사로 최우수상을 받았고, 2017년에는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저보고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고 3년 전에 부위원장을 맡아서 했어요. 현재는 3년째 안성1동 주민자치회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을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해요.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말아야죠.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일을 많이 만들었어요.

## 다시 시작한 공부

2011년도인가, 41세 때 두원공대 산업디자인과에 들어갔어요. 2년간 학교에 다니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보통 이론 수업이면 저녁 6시에 시작해서 10시면 끝나는데 디자인 쪽은 그게 안 돼요.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면 다 끝날 때까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밤 12시,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계속 앉아서 과제를 했어요. 새벽까지 학교에서 있다가 집에 가서 쓰러져 자고, 아침엔 또 가게 가서 일했어요. 저는 학교 가방을 화물차에 싣고 다니면서 5시가 되면 가게 끝내고 학교로 갔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코피가 탁 터지더라고요. 코피를 며칠이나 쏟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한경대에 편입하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접었죠. 제가 아들만 돌인데, 큰아들은 저 닮아서 그런지 미술을 해서 안양예고를 나왔고, 작은 아이는 분당 계원예고 연극영화과에 갔어요. 저야 뭐 미술 할 때도 싸구려 붓을 썼는데 아들은 붓 하나를 사도 제 것보다 몇 배 차이 나는 걸 써요. 예고 등록금도 비싸고 뒷바라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으니,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그림으로 간판을 그렸던 것 같아요.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변화가 생긴 거죠. 사실 제가 배움에 목말랐던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 때문이거든요. 요즘은 일러스트, 포토샵을 기본으로 다뤄야 하잖아요. 우리는 컴퓨터를 못 하는 세대인데, 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하면 간판 가게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집에서 또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 똑같이 따라 해 보지만 잘 기억이 안 나요. 단축키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예 수첩에 적어 놓고 보면서 연습했어요. 모르는 건 교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익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6

3대째 운영  
심준식방앗간

이영균 님  
(1964년생)



방앗간 1대는 이농근 할아버지, 2대는 이성동 아버지, 3대가 우리예요.  
안성에 방앗간이 몇 없을 때라 이농근 할아버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제 고향은 안성 시장 골목, 서인동이에요. 저는 백성초등학교, 명륜여자중학교, 안성여자상업고등학교 2회 졸업생이에요. 안성여상이 주은청설 아파트 자리에 있었는데, 이사장이 바뀌면서 이사 가고, 가온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백성초등학교 다닐 때 마로니에 식당 쪽에 건물이 없었어요. 소가 끄는 우마차 다니는 뽕 뚫린 한길이었고, 우리 집은 길가에 있는 초가집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쪽 길로 다니다가 신작로가 생긴 거예요. 저 중학교 때 건물 생기고부터 광신 사거리 골목이 비만 오면 물이 철렁철렁했어요. 여름이면 다리를 걸어 올리고 다닐 정도였어요.

##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방앗간

우리 할아버지가 사형제 중 첫째였어요. 셋째 할아버지는 성모병원 정문 옆에 공영주차장 자리에서 형제방앗간을 크게 했었어요. 형제가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형제방앗간이에요.

넷째 할아버지는 공판장 쪽에서 기름집을 크게 했었어요. 현재 시장 안에 BYC가게 자리예요. 그 뒤에 평복기름집, 떡집, 상하이만둣가게 등이 있었죠. 야끼만두 골목이라서 많이 사 먹으러 다녔어요. 순댓집하고 닭 잡아 주는 가게도 있었어요. 쌀 훔쳐다가 방앗간 가서 팔고 시장에서 뭐 사 먹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방앗간 1대는 이농근 할아버지, 2대는 이성동 아버지, 3대가 우리예요. 안성에 방앗간이 몇 없을 때라 이농근 할아버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나가서 방앗간을 차렸어요. 옛날에는 가업을 유지했으니까, 아버지가 일하면 자식들이 같이하면서 배우고 나가서 가게를 내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 70, 80대 어르신들은 형제방앗간이라면 다 기억하고, 이농근 씨라고 하면 다 알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 후, 형제방앗간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어요.

## 1970년대 우리 동네

형제방앗간 옆 꽃다방 위에 제면소도 있었고 제분소도 있었어요. 기름집, 방앗간, 제분소, 제면소 등 근처에 제면하는 집이 많았어요. 심준식방앗간 앞집도 국수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이 새벽시장이었는데, 옛날부터 야채전거리였어요. 옆에 나무전거리, 어물전거리가 있었어요. 나무전거리에서는 솔방울, 소나무 같은 걸 지게로 지어 와서 팔았어요. 엄마가 저더러 나무전거리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아저씨 우리 집에 지게 한 타요.”라고 하면 아저씨가 가져다줘요. 그때 다 군불을 때고 살았어요. 나무꾼들이 안성 외곽에 있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땀감으로 만들었어요. 리어카에 나무를 몇 덩어리씩 싣고 와서 팔았어요. 나무 쓸 만한 걸 잡고 얼마라고 하면, 리어카로 집까지 가져다주거든요. 땅콩 껍데기나 왕겨로 불을 때는 집도 있었어요.

## 시장 안, 간판 없는 기름집

어머니가 방앗간에서 일하면서 일수로 돈을 벌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안성 시장 안에 있는 금성당 앞에다가 기름집을 열었어요. 부모님 가게에는 간판이 없어서 사람들이 ‘간판 없는 집’이라고 불렀어요. 주변에 진천방

앗간이나 대덕방앗간은 간판이 있었는데 우린 없었어요.

간판집 신고할 때도 이름이 없으니 안성기름집한다고 말하면 그냥 넘어갔어요. 간이였으니까 세금도 없었고 신고만 했죠. 장사는 무척 잘 되었어요. 바로 앞이 종합터미널이라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버스에서 손님들이 내리면 몇 집이 달려들었어요. 시골에서 버스 타고 기름을 짜러 오니까 잡으면 내 손님이거든요. 지금 말로 하면 호객행위죠. 손님이 깨 자루를 들고 내리면 얼른 우리 가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몇 년간 그렇게 하다가 다들 고정 단골이 생기면서 호객행위가 사라졌죠. 1970년대까지 그랬어요. 제가 198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손님을 잡지 않고 오는 손님만 받았거든요.

저 중학교 때쯤 부모님이 슬레이트집을 샀어요. 2층을 올려 방앗간을 차렸어요. 이림슈퍼 앞에 채소전 있는 쪽 가장 끝집이었어요. 제가 30대 때까지 부모님 가게를 도왔어요. 이후에 저는 직장생활 하다가 시집가서 방앗간을 다시 차린 거예요.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방앗간 하던 곳은 빈 건물로 남아 있고 옆에 이불 가게가 들어왔어요.

## 아지트 같았던 방앗간 2층

옛날부터 친구들이 저더러 부모님 하는 기름집을 이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하기 싫었어요. 친구들은 한창 놀러 다니는데 저는 가게가 바빠서 놀러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할머니와 고추 빵고 부모님은 기름을 짬어요. 친구들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놀러 와요. 그러면 2층에 올라가서 밥 차리고 친구들과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가 제 친구들에게 집에 놀러 오지 말라고 했어요. 가만히 일하는데 꼬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놀지 말랬어요. 우리 가게가 완전히 친구들 아지트였어요.

세월이 지나서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런데 방앗간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 촬영을 했어요. 제 아이가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나면서 인큐베이터에서 지냈거든요. 워낙 몸이 약해서 2살 때부터 산에 데리고 다녔더니 체력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6살에 산악회에 입회해서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올해 2월에 완주했어요.

아이가 6살 때 등산하는 내용으로 촬영한 건데, 방송에 나올 때 우리 간판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건너편에 건강원 간판이 화면에 비춘 걸 보고 친구들이 방송국에 전화했대요. 방앗간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 연락이 다시 닿았죠.

## 옛날과 달라진 방앗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10년간 부모님과 방앗간에서 일했어요. 그때는 재래식으로 다 했거든요. 먼저 깨를 무쇠솥에 볶아요. 지금은 타이머가 있어서 깨를 다 볶이면 뽁뽁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때는 깨를 일일이 눈으로 다 확인하고 빗자루 같은 걸로 쓸어서 바깥에 널어놨어요. 잘 식힌 뒤에는 갈아서 쪄요. 찐 깨를 큰 틀에 넣어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지금은 신식이라 온도를 맞춰놓으면 알람 소리가 나고 알아서 기름을 짜주거든요. 알아서 볶고 식히고 갈고 쪄는 순서대로 기계가 해주니까 30분 안에 나와요. 옛날에는 사람이 어렵짐작해서 기름이 다 나왔겠다, 싶으면 빼는 방식이었어요. 주먹구구식이었죠. 옛날에는 깨떡도 물어냈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 묻고 100% 다 짜 줘요. 옛날에는 기름 짜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기계로 바뀌어서 훨씬 편해졌어요. 스테인리스가 가볍잖아요. 그때는 무거운 데다가 깨 두말을 담아서 추운데 널러니까 무척 힘들었어요. 깨를 널어놓고 고무래로 펼치면서 식혀야 해요.



식히면 밑에 잔여물이 나와요. 식힌 깨를 가지고 들어와서 갈고 썰야 하니 손이 많이 갔죠. 정말 힘들었어요.

고추도 그래요. 고추 빵을 때 기계에 한 번 넣으면 바로 갈아서 나오잖아요. 고추를 기계에 넣으면 속에 롤러가 2개씩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곱게 갈아줘요. 그런데 어른들은 예전 방식으로 하기를 원해요. 옛날 기계는 고추를 넣으면 고춧가루가 아래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걸 다시 기계에 넣어서 또 빵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요즘 기계를 미덥지 않아 해서 옛날 기계에 반복해서 고추를 넣고 빵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안심해요. 기계에서 고춧가루가 여러 번 거쳐서 나오면, 기계에서 고춧가루를 빼먹는 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식 기계와 옛날식 기계를 두 대 놓고 써요. 세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이 깨지지 않아서 깨 씻는 것도 싫어하고, 눈앞에서 기름을 짜야 믿어요.

### 3대로 이어간 심준식방앗간

2013년도에 심준식방앗간을 개업했어요. 심준식은 제 아들 이름이에요.

기름을 짤 때 다 볶는 줄 알잖아요. 무조건 솥에 들어가서 나와야만 기름을 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생참기름, 생들기름이라는 게 있어요. 재래식은 말린 깨를 갈아서 찹통에 넣어서 썰요. 그러면 수분이 들어가서 생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바짝 말려서 깨 그대로 그냥 짜는 거예요. 깨 그대로 바짝 말려서 짜면 생들기름이 되거든요. 깨 영양분이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깨를 볶으면 들깨 영양분이 타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요.

들기름은 아무나 짜는데 참기름을 날로 짜는 건 힘들어요. 볶은 참기름과 안 볶은 참기름은 색부터 달라요. 안 볶은 생참기름은 영양분이 살아있어요.

들기름을 날로 짜는 건 많이 하는데, 참기름은 날로 짜는 집은 우리뿐이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건조를 잘 못하거나 잘못 짜면 다 역류해 버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고소한 내가 나야 맛있는 줄 아는데, 그건 영양분이 타서 나는 탄내예요. 그런데 생들기름을 알아도 생참기름을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생참기름은 고소하거나 특별한 맛이 안 나고 생참깨 씹는 맛이 나요. 드레싱오일처럼 먹으면 좋아요.

우리는 방앗간을 하면서 전국 방앗간을 다 돌아다녔어요. 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앗간에서 기름을 내는 모습을 보면 배울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살피고 괜찮은 방식은 우리 가게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곳곳에 다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깨 찌는 기계에 채를 놓고 받았었는데 어느 방앗간에 가니 양파망을 만들어서 받더라고요. 또 어느 방앗간은 들기름을 냉장 보관해서 팔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7

## 지금은 사라진 명신빵공장 이야기

심윤석 님  
(1960년생)



이영균 님(좌) / 심윤석 님(우)

안성에 빵공장은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멍가게라고 부르던 곳에 빵을 납품했어요.

## 우시장이 활발했던 과거

저는 고향이 성남동이고 안성초등학교, 안법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옛날에는 안성군이었는데, 읍내는 동으로, 면은 리로 바뀌었죠. 안성이 13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안성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읍내로 장을 보러 왔어요. 이 지역에 우시장이 있었는데, 장날 새벽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소 파는 사람들이 전날 시장에 와서 소를 맡겨 놔요. 이 지역에 술집도 많았어요. 우시장에서 돈이 많이 순환되니까 술집이 많이 생겼죠. 선술집처럼 왕대포집이 많았고, 요정집이 많았어요. 근처 진천이나 용인에서도 우시장을 이용하려면 안성으로 왔거든요. 소 판 돈으로 술 한 잔 먹고 털려서 집에 가면 여자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죠.

소 한 마리 팔면 자식 대학 보낸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소를 파니까 며칠씩 안성에 머무르다 갔어요. 역전에 아가씨 집이 많듯이 안성은 장이 많이 서니까 시장 주변으로 술집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한 집에 아이들 네다섯, 많게는 열 명씩 낳았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제가 다섯 살 땐가, 여섯 살 무렵에 친구들과 주로 요정집이라 불리는 술집 앞에서 놀았거든요. 니나노 집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6~7살 된 딸을 데려와서 술집에 맡기는 모습을 봤어요. 밥만 먹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어린아이를 보내더라고요. 그땐 식모살이를 보내는 경우도 많았죠. 제가 밖에서 놀면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니 아버지가 딸을 술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광경을 종종 봤어요. 돈이 많이 회전되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늘진 모습이었죠. 아

버지가 억지로 술집에 딸을 보냈던 모습을 본 기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지금도 술집 간판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 큰 은행, 가게가 많았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골동품 수집하는 분도 많았어요. 다양한 직업군이 있던 동네예요.



안성우시장 축우매매장황 덩서

## 명신빵공장 이야기

아버지가 빵공장(現심준식방앗간 뒤)을 운영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일을 이어받아서 명신빵공장을 하다가 제과점하다가 현재 심준식방앗간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구멍가게로 보냈어요. 지금이야 대기업에서 빵을 만드니까 제과점으로 가죠. 예전에는 가내수공업으로 빵을 만들었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빵 종류도 몇 가지 안 돼요. 단팥빵, 크림빵, 카스텔라 정도였어요.

밀가루 원조를 받아서 빵을 만들면 학교에다 공급해서 학생들이 무료로 먹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적인데, 미국 원조 받아먹던 시절이라 학교에서 나눠 준 빵을 먹었죠.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고 구호 물품이 들어왔잖아요. 밀가루 포대를 원조 받아서 빵 만들어서 나눠 준 거예요. 밀가루 원조를 받았으니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 빵 공장을 하셨어요. 아버지 세대들이 초등학교 때 급식으로 빵을 받아먹은 거예요. 우리는 한 세대 지난 거죠.

안성에 빵공장은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멍가게라고 부르던 곳에 빵을 납품했어요.

## 안성 시내에서 심운호빵집 20년

안성에 오래 산 사람들에게 심운호빵집을 아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심 씨라 친구들이 저를 심빵이라고 불렀어요. 삼 형제가 같이 빵집을 운영했는데, 형이 주로 빵을 만들었어요. 형제가 같이 해서 옛날에 KBS <왕중근의 행복이 가득한 집>에도 나왔어요.

2013년에 빵집을 그만두고 심준식방앗간을 열었어요. 대기업 빵집이 들어오면서 손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제과점을 하면서 대를 이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몸이 힘들니까 자식에게 일을 안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런 걸 탈피하고 싶었어요. 내가 연구해서 자식에게 물려줄 땐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서 물려주고 싶었어요. 제과점을 열심히 운영했는데 체인점 빵집이 자꾸 생기니까 투자한 만큼 소득이 안 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규제를 해줘야 하는데 더 밀어주니까 기존에 있던 가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할 환경이 관찮아야 자식에게 물려주죠. 아무

리 빵을 잘 만들어도 사람들의 관심이 대기업매장에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아들이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제과점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길을 가다가 처음 한 말이 “케이크 사줘.”였어요. 아이가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해요. 우리 집이 제과점을 하지만, 체인점 빵집에서 만든 케이크를 사줬어요. 아이는 케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캐릭터를 보고 사달라고 한 거예요. 대기업 캐릭터를 작은 빵집에서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어린아이의 눈높이를 작은 제과점에서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빵집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심운호빵집에서 심준식방앗간으로

아들 이름으로 방앗간 이름을 만들 때 꼬셔서 했는데 지금은 자기를 알아주는 걸 좋아해요. 아들 별명이 심준식기름방앗간이래요. 아들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인데 그런 별명이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좋게 받아들여더라고요.

방앗간은 4계절 내내 가공해야 하니 바빠요. 모든 농산물은 가공해서 먹어야 하니깐요. 방앗간은 1차 산업의 협력업체죠. 농민의 협력업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 방앗간은 모든 걸 다했는데, 요즘은 분야를 나뉘요. 떡 하는 사람은 떡만 만들고, 기름을 짜는 사람은 기름만 만들어요. 그러니 옛날보다는 품질이 더 나아졌죠. 지금은 힘드니까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방앗간은 기름짜고 고춧가루 빵는 것만 해요.

보통 기름집 하면 속인다는 걸 먼저 생각할 거예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생긴 이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제과점은 젊은 사람이 많이 오는데 방

앗간은 인생의 고수들만 와요.

고수를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내가 들기름 커피를 개발했어요. 드시고 안심하시라고요. 기름 짜는데 30~40분 안에 나오니까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앞에 짤 기름이 밀려있으면 2시간쯤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제일 바쁜 시기는 추수철이나 김장 전이에요.

### 점점 빠르게 변하는 세상

방앗간도 점점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간극장>을 보니까 아버지가 사형제를 데리고 일하는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가게를 운영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떡 하려면 방앗간에서 줄 서서 해갔지만 그런 시대는 낭만적인 거고 지금은 전화로 주문하죠. 전화하면 떡 배달 가고, 기름 배달 가니 사람끼리 잘 안 만나는 거죠.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광고만 잘 내면 품질과 관계없이 물건이 무척 잘 팔려요. 내가 직업에 열성을 갖고 있는 것보다 광고에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성공의 지름길이 되어버렸어요. 안 좋은 일이지요. 옛날에는 기름을 잘 짜는 방법을 연구해서 일했는데 지금은 전화 주문하니까 포털 사이트에 널 광고만 신경 쓰잖아요. 광고로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방법만 더 연구하는 거죠.

8

## 1972년부터 이어온 도림목재

이인숙 님  
(1945년생)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골에서 베어온 나무를 제재했는데  
1972년도 후반, 1973년 새마을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밤 11시 반까지 나무 켜는 작업을 했어요.

저는 안성 금광면 금광리가 본적인데, 원곡면 사택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막  
내라 위로 큰오빠, 작은오빠, 언니가 있었어요.

금광면이 여러 부락으로 쪼개져 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에 할아버  
지가 대문면 면장을 해서 지금도 공덕비가 있어요. 아버지도 공무원이라 읍  
사무소에 다녔어요. 몇 년 더 근무하시다가 왜놈들 밑에서 월급 받아먹는다  
고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준비  
했는데, 6·25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다 잃어버렸어요. 강직하신 분이라 집을  
팔아서 값을 돈 다 갚았죠.

외가댁은 원삼면에서 양조장을 해서 부잣집이었는데, 저는 40세가 되어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20살 때 시집와서 살면서 가난한 살림에도 한마디 안 하  
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술을 잘 잡수시기에 물었더니, 어릴 때 양조장을 해  
서 직접 술맛을 다 보셨대요.

## 학교 생활

저는 백성초등학교, 안청중학교, 안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초등학교 1년 후배인 아이의 엄마가 일본 여자였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된 뒤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이곳에 살았어요. 일본 여자가 야마가시 빵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만들어 팔았어요. 그 빵이 맛있어서 참 잘 사 먹었어요. 동네  
구멍가게가 여럿 있어서 친구들과 참새처럼 모여서 간식거리를 사 먹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병약해서 찬 바람 불면 골골해서 폐렴까지 앓았어요. 초등  
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프기 시작해서 7~8개월을 앓다가 괜찮아지니 엄마가

학교 다녀야 한다며 저를 사립 안성중학교에 데려갔어요. 당시만 해도 공립인 안성여중은 학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당시에는 공립학교가 더 비싸고 사립이 싼거든요.

35년 전쯤부터 명륜중, 안성중학교도 평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공립이 무료가 되었죠. 지금은 중학교는 사립이건 공립이건 다 무료지만요.

당시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있었어요. 학생들 등교 전과 하교하고 나서 일할 학생을 뽑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 내기 힘든 학생이 매점 관리를 했어요. 매점에는 문구류나 간식을 좀 팔았을 거예요. 저는 오빠 두 분이 다 서울에 계셔서 필요한 건 다 사다 주셨기 때문에 매점을 이용하진 않았어요. 언니는 나보다 세 살 위인데 중학교만 졸업하고 군청에서 사환으로 일했거든요. 언니가 한문도 잘 쓰고 글씨체도 예뻐어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홍보하는 책자를 우리나라에 보내줬는데 그중 《자유의 벚》이란 잡지가 있었어요. 저는 잡지에서 앵무새를 처음 봤어요. 여러 나라 사는 법도 접하긴 했는데 앵무새 사진이 제일 예뻐서 기억에 남았어요.

안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반에서 한 10명 정도가 여고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는 확률이 한 30% 됐을까요. 시골이다 보니 100명이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안성중학교에서 10명 정도가 안성여고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밖에서 학교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학교에 가고 싶었을 테니까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대물림했어요. 엄마한테 새로 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새 책값을 받아서 헌책을 사고, 남은 돈으로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사 먹기도 했어요. 1년에 두 번씩 교과서 바뀔 때마다 짜장면값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교과서를 깨끗이 본 선배에게 사는 거예요. 내가 쓰던 교과서는 후배에

게 팔고, 개도 잘 보고 한 학년 아래인 후배에게 파는 식이었어요. 지금은 교과서를 무료로 주니까 알뜰함도 없어졌지요. 지금 아이들은 하나도 모르겠죠. 우리 때 빵집, 짜장면집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때 가게는 다 없어지고 영흥루만 남아있어요. 동네 빵집도 삼립빵, 서울빵 나오면서 기계 대량생산에 밀려서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안성여고 다녔을 때쯤 가뭄이 심했어요. 봄에는 개울 만들러 다니고, 여름에는 송충이 잡으러 다니고, 가을에는 피 뽑으러 다녔어요. 저수 시절이 약하니 봄철에 모내기를 못 하면 호미, 삽 들고 시골로 다 같이 가서 도와줬어요. 내갈(넋가)에 가서 물을 퍼내고 팽이질했죠. 몇 반은 이쪽 동네, 또 몇 반은 저쪽 동네로 가서 팽이질하고 도랑물도 만들었어요. 한여름에는 비봉산에 집게 들고 가서 송충이를 잡았어요. 나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다 같이 송충이를 잡는 거예요. 그때는 여고생들이 송충이를 보고 자지러지는 소리도 안 내고 잘 잡았어요.

가을에는 농촌 일손이 모자라니까 여고생들이 피사리도 했어요. 피를 뽑으러 가는 거예요. 이쪽은 거의 논이 없으니까 4km쯤 떨어진 아양동까지 걸어갔어요.

안성여중 앞, 맞은편도 논이었어요. 지금은 다 집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집 빼놓고 옆이 다 논이었어요. 뛰어서 넘는다고 푼뚝계(돌뚝 방언)인데, 푼뚝계 동네가 있었어요. 안성천에서 돌을 넘는 거예요. 중앙로는 제가 여고 졸업할 때 뚫어놨어요. 그땠 길이 엄청 넓게 보였어요. 제가 19, 20살 때니까 2~3년 후인 23살 때쯤 길 정비가 되었어요. 주변이 다 초가집이었는데 나중에 새마을 사업으로 슬레이트집으로 개량하는 운동이 벌어졌고요.

## 1972년 1월 15일 도림목재 시작

시아버지가 버스 사업을 했어요. 제가 버스회사에 경리사원으로 일했을 때예요. 시아버지가 아들을 제게 소개해주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꾸 나를 만나보라고 했대요.

시간이 지나고 버스와 자가용이 많이 생기면서 버스 사업이 점점 사양길이었어요. 그런데 제재소를 했던 사람이 버스 사업을 하고 싶어 했대요. 시아버지는 버스 사업을 접으려던 차여서, 맞바꾼 거죠. 버스 값 제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메꿨어요. 대출을 받아 벌면서 갚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생각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집 짓는 데 나무가 꼭 필요하고, 화목이라고 아궁이에 붙여서 밥을 해 먹어야 하니 꼭 필요했죠. 제재소는 점점 잘 되었고 버스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집은 버스 사업을 하다가 관두고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1972년 1월 15일에 도림목재가 처음 문을 열었어요. 저는 1972년 4월 2일 제일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때 만해도 약혼식을 했어요. 가게문을 열고 난 뒤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결혼했을 때 둘 다 28살이었어요.

1962년에 사방사업으로 이태리포플러를 수입해서 심으라고 했어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곳곳에 심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사방 사업 다니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이태리포플러 묘목을 사다가 농가에 나눠주면서 심으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몇 년 지내고 나니 이태리포플러가 잘 자라더라고요. 19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이 일어났어요. 새마을 사업 1호가 초가집 고치기예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골에서 베어온 나무를 제재했는데 새마을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밤 11시 반까지 나무 켜는 작업을 했어요. 자정에는 통행금지거든요. 제가 11시 반이 되기 직전에 라면을 끓여왔어요. 라면이 비쌌지만, 작업



도림목재 간판



1972년 결혼사진

하는 분들은 배가 고프니까 야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일하는 사람 중에 시골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12시 직전에 남편이 오토바이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드렸어요. 그렇게 몇 해를 했어요.

남편이 아버지와 6~7년 일하면서 제재소에 먼지도 많이 나고 힘들다 보니 결핵까지 걸렸어요. 제가 주사 놓는 걸 배워서 남편에게 주사를 놔줬어요. 나중에 결핵균이 다 죽어서 괜찮았는데 간염 보균자라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자식 넷을 낳아 키우고 살았어요. 2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목재사를 맡았어요. 지금은 아들과 같이 목재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 삼우제 끝나고 바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어차피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부딪혀야죠. 아이를 키우고 먹고살아야 하니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도 제가 가게를 계속 하니까 남편 선배들이 저더러 선택을 잘했다고 했어요. 사실 목재소를 이어서 안 할 줄 알았대요. 그때 정서가 그랬거든요.

## 1968년에 지어진 우리 집

지금 사는 집은 1968년에 지은 집이에요. 제가 1972년도에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시집왔을 때 시부모님과 시동생 2명, 시누 3명, 곁가지로 딸린 사람들을 포함해서 13~14명이 함께 살았어요. 아침 먹고 돌아왔으면 제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점심까지 같이 해야 했거든요. 그때 만해도 쌀이 귀했으니, 밀가루로 칼국수를 했어요.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시간 나면 청소와 빨래를 했죠. 그러면 바로 저녁을 지어야 해요. 하루는 긴데, 일주일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시동생들 학교 보내면서 도시락도 싸줬어요. 저녁

까지 싸줄 때도 있었어요. 광주리 하나 가득했죠.

집이 오래돼서 수리도 엄청나게 해대긴 했지만, 그냥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남편이 방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곧바로 올라갔어요. 외풍이 썰거든요. 당시에 집을 지을 때만 해도 스티로폼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샷시를 대고 스티로폼을 대서 천장을 낮췄어요. 그런데도 추워요. 10월에는 너무 바람이 세고 추워서 문틈에 신문지를 말아서 꼭꼭 눌러놨어요.

## 1981년 중앙로 건물 증축

이태리포플러는 빨리 크는 만큼 약하고 뒤틀려요. 슬레이트 지붕도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거둬들이고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는 슬래브집이 유행했어요. 지붕이 평평한 유럽형 집이에요. 그런데 유럽은 비가 조곤조곤 오는데 우리는 국지성으로 오니 비가 다 세서 다시 지붕을 만들었죠.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니까 집에 인테리어를 바꾸는 사람이 늘었어요.

제일 장사가 잘된 시기는 1975년부터 2015년까지였어요. 우리나라 건축이 99칸이라고 하잖아요. 한 칸이 9자에 2m 70cm인데, 우리나라 소나무가 그래도 곧게 크는 게 9자래요. 강원도 첩첩산중에서는 궁궐 짓는 데 쓰이는 금강송, 미인송이 더 높게 자라지만, 웬만한 산에서 자라는 건 그렇지 못하니까 한 칸 짓고, 또 한 칸 지어서 99칸이 된 거예요. 인간이 자연에 의지해서 집을 짓고 살았죠.

1975년 1, 2월에 목재소 현재 진입로 쪽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다시 건축하고 만든 지붕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매장을 늘려서 합판도 팔아야 하고 진열도 해야 하니까, 20평을 넓혀서 세운 거예요. 이 건물은 1981년에 지었어요.



도림목재 현재



도림목재 현재

당시에 우리나라가 낙후했잖아요.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시골을 보면 너무 누추하니까 중앙로 주변 건물을 증축하는데 설계 도면이나 허가를 지원해주며 건물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1988년도 올림픽이 열리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면서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부끄러우니 정비를 한 거죠. 이 도로변 건물이 그때 지어진 게 많아요. 우리도 60평을 길게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처음에 목재사를 할 때는 170~180평 되었을 텐데 나중에 도로를 사고, 초가집도 두어 채 사서 늘리면서 현재는 230평이 조금 넘을 거예요. 1981년 건물 짓고 손댄 거 하나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문화가 된다.

안성1동이 구도심인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벽에다 글을 바른다고 해서 저쪽으로 갈 손님이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동네가 구수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해요. 인구가 떠나는 이유는 먹고살기 위해서잖아요. 먹고살 게 있으면 다른 데로 안 떠나죠. 미국 구도심에 가본 적이 있어요.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곳이었는데, 먹거리도 깔끔하게 잘해놓고 불편함 없이 놀 수 있도록 해놨어요. 놀거리가 많아서 손자가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하더라고요.

작년에 안성에서 문화교육을 한다기에 환경단체 몇 명이 함께 갔어요. 거기서 제가 문화는 한 발자국씩 걷는 게 문화라고 말했어요. 한 발자국이 모여서 문화가 되는 거니 하루아침에 만들려고 하면 시행착오만 겪고 좋은 게 없어요. 하나하나 고쳐 나가다 보면 어느새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겠죠. 절대 서두르지 말고 살아야 해요.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memory in Anseong project



# 4

## 안성1동에서 만남 장소

- ① 안성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인 안성초등학교
- ② 일출과 일몰 명소로 알려진 비봉산
- ③ 경기도 문화재자료 안성향교
- ④ 근대유산 안성1동 주민센터
- ⑤ 경기도 기념물 안성성당과 앙투안 공베르 신부
- ⑥ 50년 된 문구점이 재건사커피로
- ⑦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안일옥
- ⑧ 변함없는 추억의 맛을 자랑하는 중앙스넥
- ⑨ 장애청년 바리스타와 함께 가는 디딤카페

1902년 9월 15일 사립 소학교로 개교한 안성초등학교는 안성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다. 지역의 배움터로서 오랜 기간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다.

2002년에 안성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옛날에는 안성초등학교와 백성초등학교가 최고였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안성초 64회 졸업생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6학년이 6반까지 있었고 한 반에 60~70명이었어요. 전교생이 2천 명 정도였는데, 주변에 비룡초와 내혜홀초가 생기고 아이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다문화 학생도 많아졌고요.

안성초등학교 정문 오른쪽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안성초를 대표하는 나무예요. 지금까지도 나무가 있지요.”

- 구본경 님(1962년생) 인터뷰 발췌

“저는 안성초등학교, 안법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 다닐 때 학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 반에 70명, 6반 정도씩 한 학년에 420명 이상이었어요. 전교생이 거의 2,700명 되었던데요. 이 작은 도시에 사람이 참 많았죠. 인근에 초등학교가 두 곳 있었어요. 안성초와 백성초. 백성초 인원이 좀 더 작았는데 전교생이 2천 명이었나.

학교 다닐 때 소마니라고 불리는 솔밭에 소풍을 많이 갔었어요. 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대림동산, 비봉산에도 갔어요. 소풍이



라 해도 멀리 가진 않았지요. 칠성사이다 한 병, 삶은 달걀, 새우깡, 김밥을 가지고 갔어요. 김밥 먹는 재미로 소풍간 거죠. 아이들이 몇몇이 선생님 김밥까지 싸 오니 소풍 날은 선생님 배 터지는 날이었죠. 그런데 있는 집 아이들이나 선생님 음식까지 챙길 수 있었어요. 옛날에 치맛바람이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공부를 많이 한 부모가 별로 없었으니까 선생님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더 있었죠.”

- 이재용 님(1962년생) 인터뷰 발췌

## 일출과 일몰명소로 알려진 비봉산

근방 아이들의 소풍지, 주민들의 산책로.

비봉산은 높이 227.8m의 아담한 산이다. 정상에 오르면 옛날에 장수가 앉아 흔적이 생겼다는 장수바위가 있다.

안성향교 뒤로 비봉산을 오르다 보면 비봉정이 보인다. 그곳에 서면 안성 시내가 내려다보이는데, 비봉정에 있는 망원경으로 봐도 좋다. 비봉산에서 바라본 일출과 일몰도 무척 아름다우니 기회가 된다면 꼭 보고 가기를 추천한다. 이곳에는 남자 약수터와 여자 약수터가 있다. 남자 약수터는 아래에, 여자 약수터는 위(배드민턴장)에 있다. 남자 약수터 자리에서 남자들이 등목을 많이 해서 나뉘었다는 설이 있다.

비봉산에는 출발지에 따라 코스가 여러 개로 나뉘어 다양하게 즐겨볼 수 있다.

**A코스** 통일사 - 약수사 - 비봉마루 - 비봉나래(3.5km)

**B코스** 법계사 - 약수사 - 비봉마루 - 비봉나래(3.2km)

**C코스** 안성향교 - 약수사 - 비봉마루 - 비봉나래(3.3km)

**D코스** ① 남파로오거리 - 약수사 - 비봉마루 - 비봉나래(3.7km)

② 남파로오거리 - 비봉정 - 비봉마루 - 비봉나래(3.1km)



비봉산 현재



비봉산 필각정 사진출처: <안성시지8>

안성에는 안성향교(1532년), 죽산향교(1533년), 양성향교(1533년)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죽산향교가 더 컸다. 안성향교가 지어지고 1년 뒤에 죽산향교, 양성향교가 지어졌다. 안성1동에 있는 향교는 안성향교가 유일하다.

향교로 들어가는 터널 전 150m쯤 떨어진 곳에 안성향교 홍살문과 하마비가 있던 자리라는 표시로 작은 비석이 놓여 있다. 원래 이곳에 하마비가 있었을 것이다. 향교로 가보니 계단 왼쪽에 하마비가 있다. 원래 있던 하마비를 옮겨간 것인지, 홍살문은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안성향교를 살펴보자면 풍화루, 서재와 동재, 명륜당, 서무와 동무, 대성전이 있다. 입구에 풍화루가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향교 행사나 학생들의 공부,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조선시대 향교 문루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하니 눈여겨볼 만하다.

안성향교는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고 대성전과 풍화루가 2020년 12월 28일 국가 문화재보물로 지정되었다.

향교 오른쪽으로 비봉산 등산로 C코스(안성향교-약수사-비봉마루-비봉나래 3.3km 구간)가 이어진다.



옛 관아터는 안성초등학교에 있었다. 1928년 일제강점기에 현 안성1동 주민센터 자리에 붉은 벽돌 건물인 안성군청을 지었다. 안성 일대 평야에서 경작과 소출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선 건물이다. 벽돌 쌓기 방식이 특이한데, 일제강점기에 지은 관공서 건물 중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물이 별로 없어 희소성이 있다.

1928년 동아일보 기사에 당시 본 건물 80평, 부속건물 24평, 군수관사 27평으로 지어졌다고 쓰여 있는데, 지금은 본건물만 남아있다.

안성군청, 낙원역사공원, 인근에 안성시장, 안성초등학교(1902년) 등 주요 시설이 모여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1966년 안성군청이 이전하면서 이 건물은 안성읍사무소로 쓰였다. 안성군이 시로 승격된 후, 읍사무소는 없어지고 현재는 안성1동 주민센터로 사용한다. 안성1동 주민센터 건물은 2018년 3월 9일 등록문화재 제709호로 지정되었다.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경기도 기념물 안성성당과 양투안 공베르 신부

\_ 안성시 해산로 33

안성성당은 1985년 경기도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었다.

“1900년도, 천안 삽교천 공세리본당에서 양투안 공베르 신부(R. Antioie A. Gombert 한국명 공안국, 1875-1950)가 분가해서 나와 1901년 안성구포동성당을 설립했어요. 초대 부임 신부는 프랑스 양투안 공베르 신부님이예요. 그 때부터 한 사업이 1909년 안법학교(現안법 고등학교) 설립, 포도 종자와 농사법 보급 등이었어요. 성당에서 미사를 할 때 성체 포도주가 필요하거든요. 프랑스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와 안성에 포도를 심게 되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공베르 신부님이 선교사업을 해서 신앙을 선포했죠. 안성 시민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숨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했어요. 치외법권 지역이라 가능했던 거죠. 공베르 신부님은 1950년 6·25전쟁 때 납북되어 강계군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안성성당 역사는 123년이예요. 2000년에 100주년 기념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가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100주년 기념 로고스 탑에는 100년 타임캡슐이 보관되어 있는데 2100년에 개봉할 예정이예요.

안성본당은 한옥성당으로 한옥과 양식이 절충식이예요. 1985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었어요. 안성성당은 순례사적지 제3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해요. 2020년에 화성 왕림성당, 의왕 하우현성당, 안성성당, 양평 용문성당이 수원교구 순례사적지 제3호로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순례객이 많이 찾아와요. 특히 겨울엔 성당이 정말 아름다워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 유승덕 님(1961년생) 인터뷰 발췌



1900년 10월 앙투안 공베르 신부가 동생 줄리앙 공베르 신부와 안성에 오면서 32그루의 포도 묘목을 가져와서 성당 마당에 심었는데, 2종만 살아남았다. 미사때 쓸 포도주 제조를 위해 머스캣(muscat) 품종을 심은 것이다. 안성은 우리나라 최초 포도 재배 지역이자, 최대 생산지이다.

## 다시 고향으로

재건사커피 조재엽 대표는 안성 관내 학교를 졸업 후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서울에서 생활하면서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모님도 안성에서 사업하고 계시고, 굳이 서울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남자들은 귀소본능이 있는지 고향으로 다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안성에 있으니 주말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안성에 와서 지냈어요. 졸업하기 전에 취업해서 회사에 3년 반쯤 다니다가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 재건사커피를 열기까지

조 대표는 서울에서 살 때도 거의 주말마다 안성에 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2018년 가을에 우연히 재건문구사에 임대 중이기가 붙어있는 걸 봤다. 순간 번뜩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부터 과거 흔적을 살려서 하는 재생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고, 원래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 다니는 걸 좋아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도 늘 가지고 있어서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

“안성 사람이라면 재건문구사를 다 알아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제 또래나 나이 많은 분이라면, 당시에 안성에서 학교 다녔다면 다 알죠. 저도 초등학교 때 재건문구사에서 학용품을 샀거든요. 재건문구사는 1968년부터 있었던 곳이니 다들 한 번쯤 이용해 봤을 거예요.”

처음에 카페를 열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반대했다. 조 대표는 서울에



유명한 카페를 가보고 많이 접했지만, 부모님이나 안성 토박이 친구들은 의아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카페가 흔하다보니 더 만류하기도 했다고.

“부모님 세대에는 문구사 앞이 안성시 중심 도로였대요. 이후에는 맥도날드 옆 명동거리가 중심 거리였어요. 지금은 구상권이 되었지만요.”

안성1동이 구도심이다 보니 주변 상권이 많이 침체되었다. 재건사커피가 생기면서 인근에 새로운 가게도 들어왔다. 주민들도 재건사커피가 들어온 이후에 주변이 밝아진 것 같으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 2019년부터 시작, 과거를 기억하는 카페

재건사커피의 홀만 문구사 자리다. 카페를 1년 반 운영하면서 사무실로 쓰던 옆 칸까지 확장해서 약간 분리된 공간처럼 쓰고 있다. 커피를 내리는 곳에서는 커피에 집중하고, 확장한 공간은 재건문구사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문구로 채워 넣었다.

처음 공사할 때 기존 재건문구사 간판을 떼어내려고 해서 절대 떼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 다 부수고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것을 살리면서 공사하는 게 더 어렵긴 하지만 과거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홀에 있는 나무 선반도 재건사문구점 때 쓰던 50년 된 선반이다. 문구사 사장님이 기존 선반이나 간판을 살려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새롭게 인테리어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1287

1288

1289

1290



## 재건사커피의 의미

재건문구사는 아이들이 자주 찾았던 곳이다. 근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용품 납품도 하고 인쇄물도 도맡아 했다. 그런데 요즘은 주변에 문구점 찾기가 어렵다. 학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으니 문구점에 발길이 끊기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이어진다.

사라질 뻔한 ‘재건사’이름을 살리고 콘셉트를 유지한 카페 공간이 인상깊다. 문구사 사장님이 같은 건물 2층에 사셔서 카페에 자주 들르니 공간을 찾는 손님들을 보며 감회가 새로울 만하다.

“과거 재건문구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재건사커피를 찾으면 학창 시절을 떠올려요. 매일 같이 문구사에 들러 공책이나 스케치북을 샀던 기억, 불량식품을 사 먹으며 재잘거리던 어린 시절을 회상해요.”

조 대표는 재건문구사를 경험한 사람에게 재건사커피가 추억을 떠올리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건사커피가 젊은 친구들에게는 문구사를 감각적으로 상기시켜주는,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1920년故이성례 할머니는 안성장터에서 천막치고 무쇠솥 하나 걸어 국밥을 팔았다. 그때 나이 40세였다. 안성장에는 우시장이 번성했는데, 함께 있던 도축장에서 나온 소고기와 부산물로 국을 끓이고 밥을 말아주던 것이 국밥이라고 부르는 음식이었다.

1937년, 며느리였던 19세故이양귀비 할머니가 이어서 장사에 합류했다. 이양귀비 할머니 친정도 안성장터에서 느티나무집이라는 국밥집을 운영했다. 6·25전쟁 피난민들이 내려와 국밥을 사 먹으며 장사가 잘되었다.

이양귀비 할머니는 60여 년 동안 가게를 운영했다. 1952년 창전동에 가게를 매입했는데 안일옥이라는 이름은 읍사무소에 있던 공무원이 지어준 것이다. 안성에서 따온 편안 안(安)과 한 일(一)에 집 옥(屋)을 합쳐 안성에서 제일가는 가게라는 의미다. 1970년대 후반 중앙로 3층 건물로 이전했다. 우여곡절로 건물은 경매에 부쳐져서 현재 대표가 고향에 내려와 간판을 지켜냈다. 1997년부터 김 대표가 운영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안성에는 ‘스넥’이라는 단어가 붙은 분식집이 종종 눈에 띈다.

중앙스넥은 1981년에 생겼다. 사장님은 1957년생으로 25살 때 시작한 분식집을 여태껏 이어오고 있다.

“처음에는 가족이 함께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일을 도왔죠. 스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당시에 분식집하고 일반 식당 레스토랑이 있을 때 그 중간 정도 되는 음식장사를 하면서 맞는 이름을 생각한 거예요. 스넥바를 생각해서 가게이름을 중앙스넥이라고 지었어요. 1981년에 중앙스넥을 개업하고 장사가 잘 되니까 가게 이름에 ‘스넥’을 넣은 곳이 많이 생겼어요. 분식이라는 건 저렴한 가격의 간단한 음식이고, 레스토랑이라고 붙이기에는 좀 그렇고. 레스토랑에 나오는 음식을 하면서 스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 연기일 님(1963년생) 인터뷰 발췌

사장님은 안성 사람인데, 잠시 평택에서 살면서 식당을 했다. 다시 안성에 와서 중앙스넥을 열었다. 1980년대 인천에서 평택으로 쫓면이 들어왔는데, 당시에 안성에는 쫓면을 하는 가게가 없었을 때다. 그래서 중앙스넥을 열며 메뉴에 쫓면을 넣었다.

중앙스넥은 원래 舊 안성터미널 골목에 있었다. 현재 그곳에는 메디컬센터가 들어섰다. 1980년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았던 곳이다. 터미널 주변으로 식당이 많았던 편이다. 광신로터리를 끼고, 터미널이 있으니, 사람이 많이 오갔다. 20여 년 장사하고, 현재 자리로 옮긴 지 19년째다.





가게를 옮길 당시, 성모병원 근처 상권이 나름대로 괜찮긴 했다.

현재 성모병원 옆 동네가 예전에는 7080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안성초등학교 가는 방향으로 난 길이 중심도로였다. 안성 시내를 중심으로 좌우로 도시 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중앙스넥을 이전할 때 자리가 나쁘진 않았다. 그때는 성모병원 응급실이 없었고, 병원 정문이 중앙스넥 쪽으로 나 있었다. 안성시장 입구이기도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성모병원 정문 위치가 바뀌면서 매출에 영향이 생겼다. 그러던 중 2000년도에 생활의 달인 PD가 우연히 중앙스넥에 들러, 맛을 본 뒤 TV 출연을 제안했다. 2006년 6월 2일 안성 쫄면의 달인으로, 2021년 봄에는 유튜버 쯤양이 와서 쫄면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가게가 더 알려졌다.

중앙스넥은 안성에서 쫄면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다. 쫄면이 400원이던 시절이 있었다. 메뉴는 쫄면, 돈가스, 오므라이스, 함박스테이크, 김밥 등이 있었다. 옛날에는 햄버거도 팔았다.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햄버거 체인점이 생기기 전에 수제 햄버거를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햄버거, 쫄면, 돈가스가 학생

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중양스넥 음식을 먹고 자란 세대가 세월이 지나서 다시 어릴 때 먹었던 맛을 찾는다. 특히 중양스넥을 자주 왔던 여학생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해서 임신하고 다시 가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입덧하면 옛날의 맛이 생각 나서일까.

주말이면 쫄면 맛을 잊지 못해 외지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그때나 지금이나 맛이 변함없네요.”

오랜만에 중양스넥을 찾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다. 같은 사람이 소스를 만들고 요리하니 당연한 이야기다.

외지에서 살다가 안성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특히 추억의 소스 맛을 좋아한다. 돈가스 소스, 함박스테이크나 오므라이스 소스가 197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맛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날 가족과 함께 먹었던 돈가스의 맛을 다시금 떠오르게 한다. 옛날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나온 소스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미묘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50~60대인 사람들은 젊었을 때 도시에서 먹었던 맛을 안성에서 느낀다고 표현한다.

중양스넥 영업시간은 11시부터 7시까지인데, 11시부터 2시 반까지 장사하고, 3시~5시엔 휴식 시간을 갖는다. 준비한 재료가 떨어져서 일찍 문 닫는 경우가 많다.

## 장애청년 바리스타와 함께 가는 디딤카페

1호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30(GS슈퍼마켓 안성점 별관)

2호점 경기도 안성시 시장길 37 B1(노브랜드 안성시장점)

3호점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88(아양도서관)

### 이곳은 8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카페입니다.

처음에는 2015년 공동모금회사업으로 디딤사회적협동조합을 모집해서 디딤카페 1호점을 열었다. 조합원은 15명이고 장애인 엄마, 사회복지사 후원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 무한돌봄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카페 장소부터 집기류, 월세까지 3년간 지원을 받았다. 지원 사업이 끝난 뒤, 지금은 자체적으로 직원 급여를 충당하며 운영한다.

처음에 공모사업 지원을 받을 때 협동조합을 구성하는데, 1구좌에 300만 원을 내야 조합원가입을 할 수 있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이 쉽지만은 않았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사업에 뛰어들어서 뭔가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였다.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원하는 대로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일반협동조합과 다르게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이 나면 목적 사업을 위해 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금을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자립 지원, 여가 지원 등에 주로 사용한다.

카페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신체장애는 없고, 모두 지적장애인데 대체로 심한 장애를 갖고 있다.



## 장애인 자녀의 자립을 위해

안성1동 GS슈퍼마켓 옆에 있는 1호점은 2015년, 2호점인 안성시장점은 2017년, 아양도서관 내에 있는 3호점은 2021년에 문을 열었다. 카페가 무척 잘 들어서 확장했다기보다는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서 매장을 늘린 것이다. 하지만 세금 문제라든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확장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이 시설에 가 있거나 복지관에 다니는 것보다 자립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엄마들이 카페 일을 배워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꾸려간다.

디딤카페 임남희 사무국장은 어린이집 교사로 십 여 년을 근무하며 야간에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뒀다. 아이가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어지면서 일을 그만뒀다. 카페를 열고 봉사하다시피 아침부터 오후 2~3시까지 일했



다. 이전에는 여직원 한 명이 있었지만, 3년 지원 사업이 끝나고 카페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월급을 주며 운영하기에는 빠듯했다. 결국 엄마들이 모든 일을 맡게 되었고 장애인 자녀를 교육해서 카페를 운영한다. 벌써 9년 차에 접어들었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1호점, 2호점, 3호점을 연 이유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지금 일하는 장애인의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인데 대부분 한길학교 전공과를 졸업했다. 2년제니까 보통 전문대 졸업하는 학생의 연령대이다.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한 곳에 오랫동안 일하기란 쉽지 않다. 3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만 두기도 한다. 어찌 됐든 예상치 못하게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다.

디딤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엄마랑 같이, 또는 엄마 동료와 같이 일할 수 있으니 장기근속하게 된다.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데, 디딤카페는 장애인의 사회생활 연습뿐 아니라 보호 역할도 크다.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기 힘들 때 카페에서 오래 머물기도 한다. 그런데 카페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엄마가 모두 협동조합 일원인 건 아니다.

## 아이들에게 찾아온 작은 변화

디딤카페 임남희 사무국장 아들은 중증 장애라, 어릴 때부터 무엇을 시키지 않았다고. 뭐든 못한다고 생각해서 나서서 다 해주며 키웠다. 카페 운영 초반에 아이에게 행주를 줬더니 냄새 난다고 구역질할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행주질도 하고,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도 다 땀다. 필기시험은 장애인이라 희망특별전형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아들이 과연 실기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기계를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천히 선생님과 배우면서 그라인더나 머신 사용이 모두 가능해졌다.



## 수제로 정성스럽게 만들어 내는 음료 한잔

디딤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정성이 담겨있다. 보통 밖에서 블루베리 스무디를 사먹으면 원액으로 만들어서 먹고 나면 입이 텅텅해진다. 그래서 디딤카페에서는 직접 블루베리를 설탕에 절여 사용한다. 레몬청, 유자청, 자몽청 등 조합원이 직접 만들어 온라인 판매도 한다. 과일을 깨끗이 손질하여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고 과육과 설탕만으로 만들어 냈다. 조합원이 직접 만든 수제청을 넣은 에이드나 스무디, 따뜻한 차 역시 특별하다. 아낌없이 담아낸 음료 한 잔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 아직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크다.

디딤카페를 운영하는 엄마들은 경증 장애인 아이들이 디딤카페 말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증 아이들은 엄마 손을 떠나는 게 힘들지만,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다른 직장에서 능력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아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문받고 계산하고 음료 만들기까지 다 하는 아이도 있다. 그런데 장애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장애인이 직접 음료를 만드는 걸 원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늘 조심스럽다. 카페에 자주 찾아오고 편한 사람들이 오면 아이들에게 직접 커피를 만들게 하지만, 우려가 있는 손님이 오면 엄마가 주로 일을 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에스프레소 내리는 것까지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카페에 오는 분들이 우리 카페의 특성을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스럽다. 지금은 대부분 단골이 오셔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지만, 처음에는 장애인이 음료를 만든다고 하면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겉으로 다 표현하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조심스럽게 운영한다.

옛날에는 장애인이 바깥에 나와 사회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일부러 디딤카페를 찾아주시는 손님도 있다.

아이들은 카페에서 나오면서 참 행복하다고 말한다.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또 다른 꿈을 키워간다.

디딤카페 1호점이 생기고 주변에 카페가 생겨나며 매출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 1호점으로 시작했으니 문 닫을 순 없고 다른 것을 더 해볼지 고민이라고. 장애인 표준 작업장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중이다. 사실 2호점, 3호점도 상황이 비슷해서 거의 바리스타 체험장이나 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 후 체험 활동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 공간, 디딤카페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유지되길 바란다.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memory in Anseong project



# 5

길 따라  
걷다 보면

# 안성장따라

## 도보 여행 코스



도보 여행은, 말 그대로 도보로만 하는 여행이다. 두 발로 걸으며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다니는 여행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녀야 편한 동네가 있는 반면에 걸어 다녀야 더 좋은 곳도 있다. 안성은 직접 찬찬히 둘러보아야 더 좋은 마을이다. 반드시 오랜 시간 걷지 않아도 괜찮다.

지역마다 도보 여행 코스가 많이 개발되어 있다. 제주올레길이라든지, 지리산 둘레길, 동해안 해파랑길 등이 알려져 있다. 다른 지역을 걷다 보면 마을 특유의 문화와 분위기가 느껴진다. 제주올레길은 코스마다 다양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지리산 둘레길은 산을, 동해안 해파랑길은 바다를 끼고 걸으며 긴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 길을 걸으며 지역을 오롯이 눈에 담게 되고, 그 안에서 얻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안성동에 남아 있는 근대문화자산을 알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도보여행 코스를 만들었다. 조선시대보다는 시장의 규모가 작아졌지만 아직 엿볼 수 있는 옛 자취를 느껴 보도록 만든 코스다.

대구, 전주와 더불어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 안성장은 《허생전》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임꺽정이 상여꾼으로 변장하고 무리를 모아 상여 안에 숨겨놓은 무기를 들고 안성장에서 돈과 포목, 곡식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임꺽정이 삼베나 유기 등을 빼앗아 소와 말에 싣고 칠장사로도 망갔는데, 그 절이 실제로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있다. 마을 이야기를 모르고 둘러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알고 여행하면 더 많은 이야기가 눈에 담기기 마련이다.

안성은 예전에 인후(목구멍)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지역이다. 조선시대에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6개의 교통로가 있었다. 의주로(한양에서 의주), 경흥로(한양에서 함흥), 강화로(한양에서 강화), 평해로(한양에서 평해), 삼남로(한양에서 해남), 영남로(한양에서 동해)이다.

지도에서 서울에서 충청, 전라, 경상의 삼남 지방으로 이어지던 1,000리 길인 삼남로와 한양에서 부산 동래까지 이어지는 영남로를 보면 안성은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산 동래와 전라남도 해남에서 타고 올라오다 보면 만나는 두 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안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사꾼들이 두 길을 따라 올라오다가 한양이 가까워질 때쯤, 안성이 있으니, 시장을 보게 되었고 안성장이 급격히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시장에서 팔기 위해서 시작한 공예품이 발전한 지역이다. 그런데 유기는 안성장이 활발해지기 이전부터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일제강점기 시장 유기전과 유기상인 엽서  
출처 : 《안성시지8》



1900년대 주물 술을 파는 시장 모습  
출처 : 《안성시지8》

### 제1코스(2시간, 3km)

안성향교 ⇨ 안성성당(구포동성당) ⇨ 舊 안성군청(안성1동 주민센터) ⇨ 중앙정미소 ⇨ 안성낙원역사공원 ⇨ 흥제의원 ⇨ 60·70거리 ⇨ 작은 미술관 ‘결’

### 제2코스(1시간 20분, 1.4km)

작은 미술관 ‘결’ ⇨ 60·70거리 ⇨ 흥제의원 ⇨ 안성낙원역사공원 ⇨ 중앙정미소 ⇨ 舊 안성군청(안성1동 주민센터)

출처 :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팸플릿

# 마을의 옛 기억을 살린

## 벽화거리



사람들이 오래 머물렀던 흔적이 남은 동네, 골목길로 이어진 집과 집 사이 담장 따라 시멘트 벽이나 벗겨진 페인트가 세월을 알려주곤 한다. 언제부터가 남은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마을이 많아졌다. 동두천시 외국인관광특구에 그라피티 벽화 거리나 충남 공주시 유급읍에 있는 유구벽화거리처럼 섬유공장 중심에 조성되어 섬유 관련 그림을 그려놓기도 한다. 신안군 임태도에는 동백파마머리 벽화로 유명하다. 관광객들이 들러서 사진 찍고 갈 정도로 눈길을 끈다. 벽화는 대체로 환경개선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남은 것을 감추는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오가는 사람의 예술적 볼거리가 된다. 벽화가 마을의 이미지를 담는다면, 좀 더 특별해진다. 안성1동에는 곳곳에 특별한 벽화거리가 있다. 안심마을 추억의 미담로, 걸어가는 영동마을 만들기, 안성1동 주민센터 옆, 안법고등학교 담벼락을 따라 구포동 행복맞춤 마을 쉼터, 안성향교가 있는 명륜동 종소리길 등 마을 특색을 살린 그림이 벽을 따라 가득하다. 벽에 담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마을을 아끼는 주민들의 마음이 절로 느껴진다.

2020년 안성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식물 터널이 설치됐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식물 터널을 중심으로 벽화를 그렸다. 회의를 거쳐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까지 모두 주민들의 힘으로 완성한 것이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마을을 가꾸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길이다.

안성1동 주민센터 건너편, 그리고 GS마트(舊 안성군청)가는 길에도 벽화가 있다. 서운산, 석남사, 안성맞춤랜드, 포도 등 안성시를 대표할 만한 그림이 벽을 가득 채웠다.



## ① 걸어가는 영동마을 만들기

영동마을에 사는 200여 가구 주민들이 낙후된 마을을 가꾸기 위해 영동새마을협동회를 구성하여 살기 좋은 마을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마을 안내도를 설치하고 벽화를 그리는 등 마을 곳곳에 주민 손길이 닿았다. 2008년 경기의제 21이 주관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경연에 참가하여 최우수 마을에 선정, 1천 만 원을 지원 받고 마을기금과 시 기금을 보태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 1단계 사업이 벽화그리기였다. 2008년 9월에 벽화가 완성되어 마을을 아름답게 빛내고 있다.

디딤카페를 잇는 벽에는 걸어가는 영동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파랑새 어린이집(만 4세, 5세)유아들이 그린 벽화가 있다. 2009년 10월 15일에 완성된 작품으로 참여 유아 단체 사진도 함께 소개되어 있었다. 낮은 벽따라 그려진 그림에는 유아들의 꿈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14여 년이 지난 지금, 벽에 나비와 기차, 구름을 그렸던 아이들이 20살쯤 되었을 것이다. 내 손길이 닿은 길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어린이집에 다녔던 때가 어렴풋이 기억날 테지만 정겨운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2009년 파랑새어린이집 친구들 모여라!



## ② 안심마을 추억의 미담로.

### 안성상징거리

예전에 안성장이 커서 육전거리가 있었다. 추억의 미담로는 어물전, 포목전, 나무거리, 유기거리, 소전거리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아궁이에 나무로 불 때고 살아서 나무거리도 많았고, 소를 거래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다. 포목전은 베, 모시, 무명같은 옷감을 파는 가게를 말한다. 안성은 베 원료인 마를 주로 재배해서 명물로 이름이 났다. 안성장에 인근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자연스럽게 식당이나 선술집도 많아졌다.

40~50년 전 심준식방앗간 옆 골목은 원래 술집 골목이었다. 색시골목, 니나노집, 방석집이라고 불렸다. 지금은 쇠퇴해서 허름하게 집만 남아있다. 안성 남자 중에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방석집에 사람이 많았던 시절도 있었다. 두 명이 지나가기에 비좁은 골목에는 옛날 술집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다. 지금은 그 골목도, 골목을 빠져나오면 보이는 제법 넓은 거리도 한산하다. 근처에는 고려 약방과. 어물전 쪽 남산여인숙 앞에 큰 한옥도 있었다.

미담로에는 안성을 주제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 안성상징 거리

안성시청 앞길 1번

백담산에서 내려오는 차가 내려가면 안성, 그 풍경이 안성이다

백담산에서 내려오는 차가 내려가면 안성, 그 풍경이 안성이다

안성시청 앞길 1번

백담산에서 내려오는 차가 내려가면 안성, 그 풍경이 안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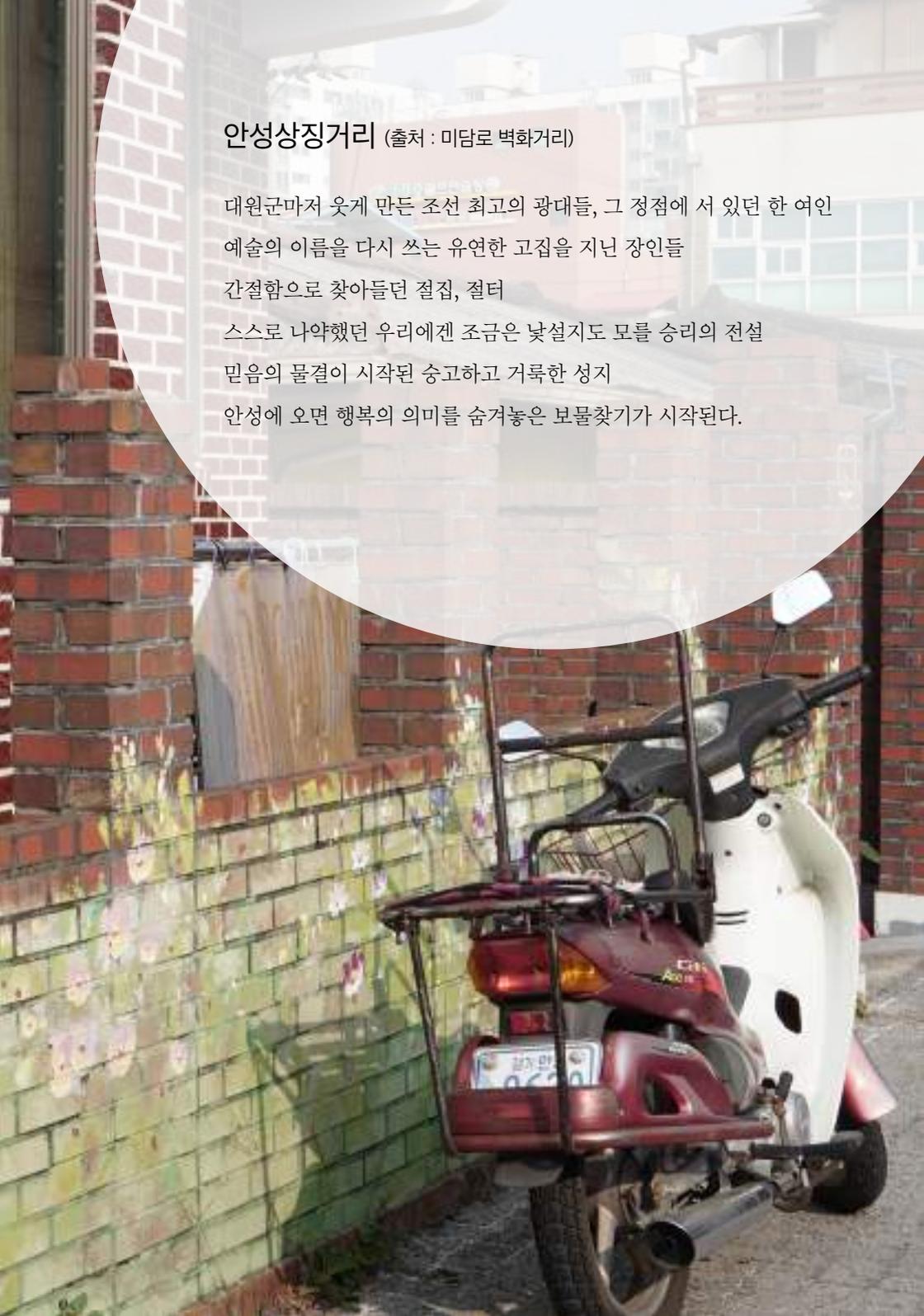
안성시청 앞길 1번

백담산에서 내려오는 차가 내려가면 안성, 그 풍경이 안성이다



## 안성상징거리 (출처 : 미담로 벽화거리)

대원군마저 웃게 만든 조선 최고의 광대들, 그 정점에서 있던 한 여인  
예술의 이름을 다시 쓰는 유연한 고집을 지닌 장인들  
간절함으로 찾아들던 절집, 절터  
스스로 나약했던 우리에게겐 조금은 낯설지도 모를 승리의 전설  
믿음의 물결이 시작된 송고하고 거룩한 성지  
안성에 오면 행복의 의미를 숨겨놓은 보물찾기가 시작된다.





## 안성명물거리 (출처 : 미담로 벽화거리)

선영은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다. 혼수를 준비할 때가 되어 선영은 어머니와 함께 안성 장터를 찾았다. 처음 들른 포목점에서 예단에 필요한 비단과 함께 명물로 유명하다는 베도 한아름 샀다. 또한 선영은 이제 가족이 될 시부모님께 뭔가 특별한 걸 선물하고 싶었다. 잡화점 앞을 지나가던 선영은 눈에 띄게 잘 만들어진 백동연죽을 발견했다. 수없이 두드리고 불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며 만든 백동을 오동상감기법으로 정성스레 세공한 고급 담뱃대였다. 선영은 담배를 즐겨 피우는 시아버지에게 이 백동연죽이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샀다. 집에서 쓸 밥상을 사기 위해 목물전에 들린 선영은 자신이 바라던 것과 꼭 맞는 예쁜 상을 찾아냈다. 그 옆에서 아름답게 조각된 문갑도 보았다. 시어머니가 매우 좋아하실 것 같은 작지만 우아한 문갑이었다. 그 외에도 목물전에는 손재주가 좋다는 안성 사람들이 운영하는 점포답게 잘 만든 목공예품이 매우 많았다.

선영은 하루 종일 장터를 돌아다니느라 피곤했지만, 좋은 물건을 잔뜩 구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선영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이 정성껏 준비한 혼수품을 사용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다. 선영은 그런 어머니를 꼭 안으며 지금까지 소중하게 키워주신 것에 감사했다. 선영과 어머니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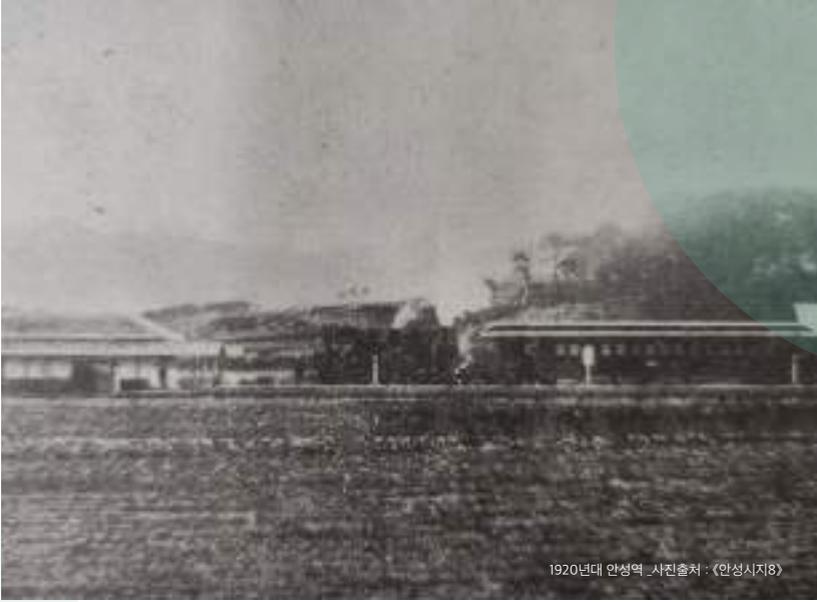
## 안성기차길 (출처 : 미담로 벽화거리)

안성 일대 평야는 예로부터 ‘흉작 없는 풍작지’로 소문날 정도로 매년 고르게 질 좋은 쌀을 생산해 냈다. 게다가 한양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안성은 비단 안성 일대 평야에서 난 곡물 뿐 아니라 삼남지역에서 올라온 다양한 특산물이 모여드는 집산지이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마을 입구는 한가득 농작물을 실은 마소가 줄을 이어 들어오는 진풍경을 연출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안성까지 ‘철로 만든 말’이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게 되었다는 내용이였다. 엄청난 증기를 뿜어내고 커다란 소리를 내며 달리는 이 신문을 ‘기차’라 불렀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이 개통된 지는 20여 년이 지났지만 기차는 여전히 낯선 신문물이었고, 안성주민 대부분 단 한 번도 기차를 본 적이 없었다.

모두 기대에 차서 첫 기차가 안성에 도착하는 순간을 숨죽이며 기다렸다. 멀리서 기적이 울렸고, 하얀 증기를 뿜어내는 첫 기차가 서서히 거대한 몸집을 드러냈다. 안성 주민들의 환호성 속에 도착한 첫 기차에서는 백여 마리의 마소가 쏟아낼 정도로 엄청난 곡물이 쏟아져 내렸다. 1925년 11월, 어느 별 좋은 날이었다.



1920년대 안성역 사진출처 : 《안성시지8》



1970년대 안성역 사진출처 : 《안성시지8》

안성선 (安城線)

1985년 4월 1일

안성선을 오가던 여객열차

개화의 바람을 타고 생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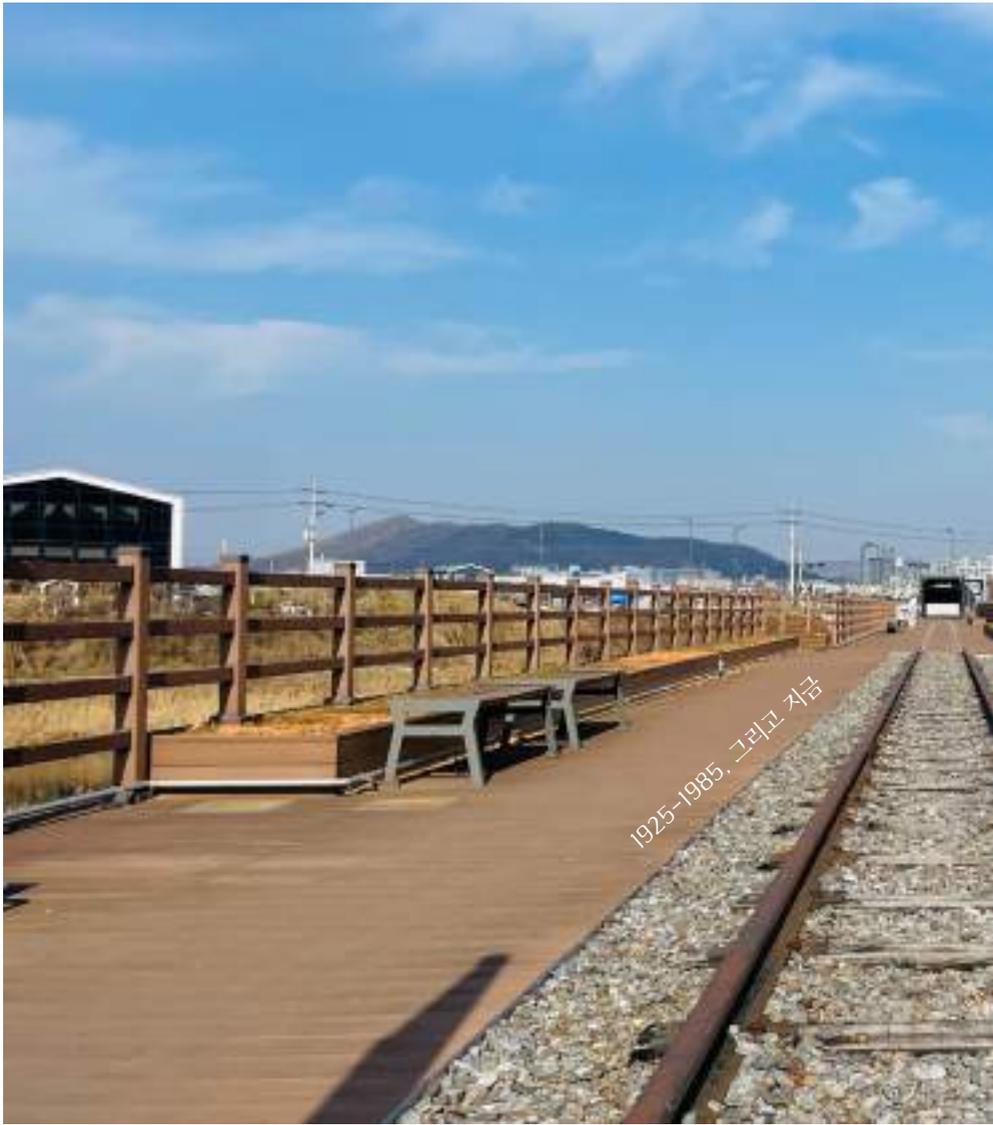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려

잊혀져 버린 정거장, 안성

하지만 지금도 안성 곳곳

철길과 역사의 흔적이 남







### 함께 가볼만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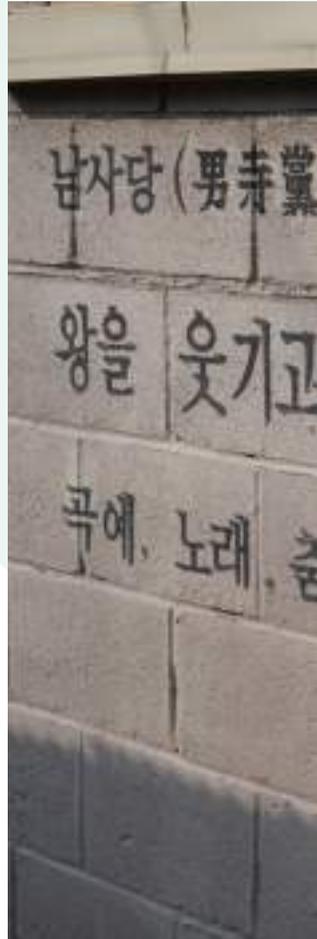
안성역 스테이션 100 : 폐선된 안성선 철교 위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389-3)

## 안성맞춤거리 (출처 : 미담로 벽화거리)

남사당은 조선 후기에 장터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곡예, 춤, 노래를 공연했던 집단으로 전문 공연예술가들로 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연예집단이다. 발생 시기는 조선 숙종(1661~1720)때이며, 남사당패가 시작된 곳이자 전국남사당패의 중심이 되었던 곳은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불당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남사당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40~5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체의 우두머리를 꼭두쇠라고 불렀다. 그러나 바우덕이 이후에도 남사당의 근거지이자 생활터전이었던 안성에서 남사당의 후예들이 안성과 서울을 중심으로 전통을 끈질기게 이어오면서 오늘 날과 같은 모습의 남사당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들은 꼭두쇠를 중심으로 공연 내용을 정하여 기예를 연마하였고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다니면서 풍물놀이, 줄타기, 탈놀이, 창(노래), 인형극, 곡예(서커스) 등을 공연했다.

당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증건하고 있었는데 ‘바우덕이’의 안성 남사당패가 신명나는 공연으로 노역자들을 기쁘게 하여 경복궁 증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흥선대원군은 노비보다도 천한 남사당패에게 당상관 정3품의 벼슬에 해당하는 옥관자를 수여했다고 전해온다.





### 함께 가볼만한 곳

청룡사 : 남사당패의 근거지. 청룡사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을에는 청룡사에서 준  
신표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





### ③ 명륜동종소리길 벽화거리

안성성당과 안성향교 사이  
명륜동종소리길이 있다.  
성당에서 들리는 종소리,  
고즈넉한 향교의 분위기를 느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





‘골목은 그저, 시간만으로 친구를 만든다’라는 벽화 문구가 인상적이다. 그 옆에 순이점빵과 가게 의자에 앉은 세 어린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간식을 쥐고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니 친구와 뛰놀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벽화에 쓰인 대로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며’ 걸어보면 좋겠다.

안법고등학교 담 아래에는 구포동 행복맞춤 마을쉼터가 있다. 구포동 주민들이 관리하며, 안성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쉼터라고 적힌 안내판이 있다. 안성성당을 지나 안법고등학교, 안성향교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잠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볼 수 있을 것만 같다. 모든 면에서 편해진 시대지만, 가끔은 작은 일에 행복해했던 그때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며



# 마을 주민의 오래된 심터



## 낙원역사공원

경기 안성시 낙원길 78

1920년대 신문 기사를 보면 수백 년 전부터 있던 공원이라고 소개된 곳이다. 당시 발행한 엽서에서 낙원역사공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공원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나온 말로 이전에는 다르게 불렀을 거라고 추측된다.

옛날 사진 속에서 낙원역사공원을 찾아볼 수 있다.

낙원역사공원에 ‘동일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1910년대 이곳에서 찍은 사진으로 만든 엽서가 있다.

또한, 1911년 신부님이 안성에서 산책하며 찍은 사진 중 장소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사진이 있다. 그런데 안성1동 인근에 산책할 정도로 넓고 시내에 고목이 우거진 곳은 낙원역사공원뿐이다.

공원에 있는 나무는 방풍림으로 안성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 심어 놓은 것이다.

안성 곳곳에서 만세운동을 펼쳤을 때, 기생양성소에서도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기생들은 관아(現 안성초등학교), 읍내면 사무소(現 우정집), 안성주재소(現 낙원연립)을 지나 낙원역사공원에서 만세운동을 펼쳤다. 매일신보에 보도 되어 안성 지역 기생이 만세운동을 했음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지역 기생과 달리 형을 받지 않아 이름이 남아 있지 않다.

오래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미륵이 아직 공원에 남아있는데, 예쁘게 생긴 할머니 미륵과 키가 좀 작지만 우락부락하게 생긴 할아버지 미륵을 볼 수 있다. 1911년 사진을 보면 옛날부터 비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비석이 더 늘어난 상태다.

정자, 연못도 있고 소나무가 우거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다. 젊은이들끼리 데이트 장소였고, 반공 꺾기 대회, 체육대회, 웅변대회, 씨름 대회 등 학교 모든 행사는 이곳에서 열릴 정도였다.



낙원역사공원 소연정 옆서



낙원역사공원 정경과 도서관



낙원역사공원 음악당 옆서

“제가 읍사무소에서 일할 때 낙원역사공원에서 잉어 키우느라고 밥도 많이 주고 그랬어요. 연못에 물 대려고 지하수도 팠어요. 물이 부족해서 수로를 만들어 놔었죠. 지하수를 매일 틀고 관리를 해줬어야 했던 기억이 나요.”

-유승덕 님(1961년생) 인터뷰 발췌



안성시 4077호(안성1동)에  
 2005년 7월 15일 준공된  
 14,000㎡ 규모의 안성1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5일 준공된  
 이후 14,000㎡ 규모의  
 14,000㎡ 규모의 안성1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 역사와 문화의 공존을 꿈꾸는



## 낙원역사공원 문화축제

주관 : 안성1동 주민자치위원회



“낙원역사공원은 이름에 역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거나 역사를 경험하는 공간보다는 노인 쉼터로 주로 활용되는 곳이에요. 옛 안성공원의 역사성을 살려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축제 이름에 문화를 넣어 ‘낙원역사공원 문화축제’를 기획했어요. 안성시 주민자치참여예산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어요. 예산 2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2022년부터 일 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총 4회를 열었어요.”



제1회 낙원역사공원 문화축제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파크 콘서트



제2회 낙원역사공원 문화축제  
아름다운 안성시민들을 위한 감성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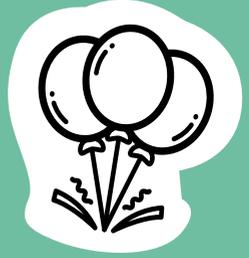
제3회 안성의 역사와 문화를 잇는  
낙원역사공원 문화축제



제4회 낙원역사공원 문화축제

## 안성바우덕이 축제

### 길놀이퍼레이드



“안성에서 바우덕이 축제를 할 때 길놀이 퍼레이드를 했어요. 봉산로터리에  
서 광신로터리, 내혜홀 광장으로 가는 길놀이 행사인데, 15개 읍면동에서 각  
자 특색 있는 주제를 정해서 브라질 카니발처럼 분장하고 행사하는 거예요.  
길놀이 행사TF팀을 꾸려서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다  
들 말로만 이야기하기에 제가 답답해서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서 이것저  
것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니 다들 이해가 빠르게 된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해서 2016년에 길놀이 행사로 최우수상을 받았고, 2017  
년에는 우수상을 받았어요. 길놀이 할 때 주제가 7080이었는데, 간판도 제가  
다 붓으로 그려서 제작했어요. 7080세대니까 교복을 만들어 입고 행사를 했  
어요. 마릴린 먼로 흉내도 내고 차에 장식을 꾸미고, 칠성다방 만들어서 음악  
DJ 복장 입기도 하고 추억의 삼성다방, 고고장 콘셉트, 뽕튀기 기계 가져와  
서 사람들에게 뽕튀기도 나눠줬어요. 가온고등학교 댄스팀이 광신로터리 광  
장에서 그룹 Boney M의 <sunny>를 틀어 놓고 단체로 똑같이 춤도 났어요.  
안성1동에 내세울 게 없었는데 안성맞춤아트홀이 막 생겼을 때라 아트홀 모  
양을 형상화해서 콘셉트를 잡기도 했어요. 통장단, 체육회, 풍물반, 교통봉사  
단, 민요반 회원 등 단체별로 다르게 해서 복장을 다르게 입고 길놀이 행사를  
즐겼어요. 아주 재밌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해서 사람들이 아쉬워했죠.”

- 구본경 님(1962년생) 인터뷰 중 발췌

사진출처: 안성시



사진출처: 안성시



## 안성객사와

## 일본신사터



현재 명륜여자중학교가 있는 자리도 공원의 일부였다. 그 자리에 안성객사가 있었다. 원래 안성초 옆 교육청 근처에 있던 건물을 옮겨온 것인데 1997년쯤 명륜여중에서 건물을 더 지으려고 뜯어 버리려고 했다. 김태훈 문화원장이 그것을 보고 흥원의 학예사에게 이야기했고, 문화재 위원들을 소집하여 안성객사 건물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안성객사를 해체하여 보개 도서관 옆으로 이전할 수 있었으며,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3년 전쯤 보물로 인정받았다.

명륜여중 안에 동그랗게 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 있다. 나무와 식수대 사이에 일본 신사가 있었다.

흔적만 남은

중앙정미소

안성시 낙원길 107



1952년 건립된 정미소로 규모가 꽤 큰 편이다. 정미소는 곡물을 가공하는 공장인데, 방앗간의 일종이라고 보면 된다. 넓은 평야 지역인 안성에서 꼭 필요했던 정미소. 세월이 흘러 정미소는 쇠퇴하고 문을 닫았다. 오래된 나무 간판에 정부양곡도정 중앙정미소라고 적힌 글자가 세월을 말해준다.

일상의 모습, 기억된다는 것, 그리고 기록된다는 것, 다시 의미를 찾아본다는 것.

이번 마을 기록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지점이었습니다. 추억하고 싶다는 마음, 아직 추억하고 있다는 마음, 그 추억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번 안성1동을 기록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기록은 사람과 마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활동입니다. 과거를 추억하여 자기 경험과 감정을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글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가 됩니다. 안성1동 주민들을 만나며 하나의 작은 역사가 책에 새겨졌습니다.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 안성, 다시 아로새기다》는 옛 시절을 잇고 살아가던 주민에게도, 안성1동을 기록하는 우리에게도 낯설었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마을을 기록하는 방향만이 아니라 안성시, 안성미디어센터 그리고 주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을 기록은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책을 함께 작업해 준 차영선 작가님, 안성1동 주민자치위원회, 인터뷰에 참여한 주민들 등 모두 함께했기 때문에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 안성, 다시 아로새기다》 ‘안성1동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기억으로 기억되고, 기록으로 기억될 수 있는 안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안성미디어센터 김은정 사무국장

개인의 역사가 모이면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역사가 모여 마을의 역사가 됩니다. 그 역사를 만드는 것은 기록입니다. 기억은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기억을 끄집어내어 글과 사진으로 남기면, 우리의 기억이 되어 함께 간직할 수 있는 역사가 됩니다.

‘기억’과 ‘기록’의 가치, 그것이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 안성, 다시 아로새기다》의 출발이었습니다. 처음을 함께 할 마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고민의 끝은 자연스레 안성미디어센터가 있는 안성1동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난 많은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과정에 함께 해주신 안성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 안성1동에 대해 알기 위해 찾아보았던 흥원의 학예사님, 안성1동의 곳곳에서 개인의 역사를 만들고 계셨던 주민분들, 마지막으로 이 과정 전체에 함께 해주신 차영선 작가님까지.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람의 함께 힘을 보태주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 안성, 다시 아로새기다》 ‘안성1동 이야기’. 안성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한 걸음씩 천천히 또 다른 마을을 기록하여 시간이 지나도 기억될 수 있는 안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성미디어센터 조재형 담당자

## 참고자료 및 사진

성낙구, 《안성향토사료집 안성의 지명》, 안성문화원, 2008.

홍원의, 장연환, 김해규, 봉원학, 《청소년을 위한 안성의 역사와 문화이야기》, 안성맞춤박물관, 2009.

안성시지편찬위원회, 《안성시지》, 안성시·안성문화원, 2011.





경기도 안성시 발화대길21,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

대표번호 031-671-9830

홈페이지 [www.asmedia.or.kr](http://www.asmedia.or.kr)

대표메일 [asmedia@asmedia.or.kr](mailto:asmedia@asmedia.or.kr)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안성, 다시 아로새기다 - 안성1동 이야기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안성미디어센터
총괄	김우현, 김은정
기획	조재형
취재/글	차영선
제작	차차책고 출판사
디자인	루아흐 디자인
ISBN	979-11-978276-6-2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성미디어센터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 책자의 표지와 본문 일부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클래식체', 'KCC은영체', 'G마켓 산스체'가 사용되었습니다.